

0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연구

arts change the world

문화예술 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회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8. 10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8년 10월 인쇄

2018년 10월 발행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편 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빛가람동 352)

전화 061-900-2100, 2200

팩스 061-900-2362

홈페이지 www.arko.or.kr

이메일 arko@arko.or.kr

본 보고서는 무단전제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제도 개선방안 연구

/ 2018 . 10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주관기관 : 기분좋은큐엑스(주)

연구총괄 : 황상훈 기분좋은큐엑스 대표

책임연구원 : 서진숙 기분좋은큐엑스 부장

연 구 원 : 허동혁 기분좋은큐엑스 대리

김응천 기분좋은큐엑스 연구원

윤나리 기분좋은큐엑스 대리

연구보조원 : 김민정 기분좋은큐엑스 연구원

송소희 기분좋은큐엑스 연구원

연구자문 : 윤성진 (사)한국문화기획학교 이사

이희진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목 차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18
2. 연구 목적	19
제2절 : 연구 범위	
1. 대상적 범위	20
2. 내용적 범위	20
제3절 : 연구 방법	22
제4절 : 연구 추진체계	23
제5절 : 연구 항목	24
제6절 : 자문위원	26

제2장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제도 현황 분석

제1절 :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제도 운영 배경 및 목적	
1.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배경	28
2.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목적	29
제2절 : 지원심의제도 운영 실태	
1. 기본적 운영 방향	30
2. 연도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제도 변화 양상	33
제3절 : 지원심의절차에 따른 운영 현황	
1. 심의위원 후보단 구성	43
2. 심의위원회 구성	44
3. 심의회의의 진행	45
4. 심의 이후의 절차	46
제4절 : 심의제도 운영 현황 분석 (2016년 기준)	
1. 심의 예산 및 규모	47
2. 심의 운영조직	50

제3장 사례 분석

제1절 : 국내사례

1. 한국연구재단	54
2. 영화진흥위원회	59
3. 한국콘텐츠진흥원	63
4. 국내 광역재단 (16개)	66
5. 국내사례 시사점	71

제2절 : 해외사례

1. 잉글랜드예술위원회 (Arts Council England)	73
2. 일본예술문화진흥회	76
3. 국립예술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79
4. 해외사례 시사점	83

제4장 의견수렴 결과

제1절 : 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86
2. 조사 결과	87

제2절 : 심의위원 FGI

1. 조사 개요	105
2. 조사 결과	106

제3절 : 내부관계자 FGI

1. 조사 개요	111
2. 조사 결과	112

제4절 : 전문가 자문회의

1. 조사 개요	115
2. 조사 결과	116

제5절 : 소결

제5장 지원심의제도 개선방안

제1절 : 심의단계별 개선 대안 도출

1. 사전공모 단계	122
2. 심의위원회 구성 단계	124
3. 심의 진행 단계	127
4. 결과 보고 단계	133
5. 사후 관리 단계	135

제6장 부록

제1절 : FGI (심의위원)	138
제2절 : FGI (내부 담당자)	141
제3절 : 설문조사 (현장 예술 관계자)	143
제4절 : 설문조사 (광역재단 관계자)	150
참고문헌	154

표 목 차

[표 I -1] 현장예술가 대상 설문조사 항목	24
[표 I -2] 심의위원 FGI 항목	25
[표 I -3] 전문 평가위원 구성	26
[표 II -1]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운영 규정 주요 내용	30
[표 II -2] 2006년 지원심의제도 개요	33
[표 II -3] 공통 심의기준 세부 내용	34
[표 II -4] 2007~2008년 지원심의제도 개요	35
[표 II -5] 2009년 지원심의제도 개요	37
[표 II -6] 2010~2016년 지원심의제도 개요	39
[표 II -7] 2017년 지원심의제도 개요	41
[표 II -8] 분야별 심의위원 후보단 현황	43
[표 II -9] 전년대비 심의위원회 구성 비율(2017년 정시공모 기준)	44
[표 II -10] 지원심의 진행 절차	45
[표 II -11] 지원심의 옴부즈만 구성 현황(2017 기준)	46
[표 II -12]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예산 현황 (2016년 기준)	47
[표 II -13] 심의 운영 예산 현황 (2016년 기준)	48
[표 II -14] 심의 규모 (2016년 기준)	49
[표 II -15] 심의위원 사례비 집행기준 (2016년 기준)	49
[표 II -16] 부서별 인원 현황	50
[표 III -1] 한국연구재단 예산 현황	54
[표 III -2] 한국연구재단 PM 구성 및 역할	55
[표 III -3] 한국연구재단 분야별 PM 운영 현황	56
[표 III -4] 한국연구재단 심의 절차	56
[표 III -5] 업무절차별 PM 역할	57
[표 III -6] 영화진흥위원회 예산 현황	59
[표 III -7]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산 현황	63
[표 III -8] 부문별 재단 담당자 조사 항목	66

[표Ⅲ-9] 광역문화재단 지원사업 담당자 리스트	67
[표Ⅲ-10] 광역문화재단별 심의특징 및 문제점	68
[표Ⅲ-11] ACE 예술지원사업 사업영역 및 구조(2013/2014년 기준)	74
[표Ⅳ-1] 조사 항목	86
[표Ⅳ-2] 응답자 특성	87
[표Ⅳ-3] 지원심의회도 인지도	88
[표Ⅳ-4] 지원심의회도 이해도	89
[표Ⅳ-5] 심의절차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기여도	90
[표Ⅳ-6]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심사결과에 대한 책임성 제고 기여도	91
[표Ⅳ-7] 중요도-만족도 비교 분석 결과	92
[표Ⅳ-8] 개선 사항	95
[표Ⅳ-9] 불만족스럽거나 문제점이라고 응답한 이유	96
[표Ⅳ-10] 향후 개선 방안	98
[표Ⅳ-11] 향후 심의위원 인력풀 확충 영역	99
[표Ⅳ-12] 심의위원 후보군(풀) 구성방법	100
[표Ⅳ-13] 심의위원 위촉 방식	101
[표Ⅳ-14] 심의회의 운영 방식	102
[표Ⅳ-15] 지원제도 운영 관련 개선점	103
[표Ⅳ-16] 지원심의회도 개선을 위한 제안	104
[표Ⅳ-17] 심의위원 FGI 참석자	105
[표Ⅳ-18] 내부관계자 FGI 참석자	111
[표Ⅳ-19]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자	115
[표Ⅳ-20] 절차별 의견수렴 이슈 정리	118
[표Ⅴ-1] 공모 단계의 현황 및 문제점 도출 (2016년 기준)	122
[표Ⅴ-2] 심의위원회 구성 단계의 현황 및 문제점 도출 (2016년 기준)	124
[표Ⅴ-3] 심의위원 추천위원회 구성방안	126
[표Ⅴ-4] 심의진행 단계의 현황 및 문제점 도출 (2016년 기준)	127
[표Ⅴ-5] 4개 장르(연극, 무용, 전통예술, 뮤지컬)별 제출서류 안내	128
[표Ⅴ-6] 심의 장르 및 형태별 심의 소요시간(예시) (2016년 기준)	129
[표Ⅴ-7] 광역문화재단의 심의참관인제 운영 현황	131

[표 V-8] 결과 보고 단계의 현황 및 문제점 도출 (2016년 기준)	133
[표 V-9] 사후 관리 단계의 현황 및 문제점 도출 (2016년 기준)	135
[표 V-10] 심의위원 이력관리 체크리스트 (예시)	136

그림 목 차

[그림 I -1] 연구 추진 체계	23
[그림 II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도	50
[그림 II -2] 문예진흥기금 담당업무 조직 구조	51
[그림 III -1] 일본문화예술진흥회 운영위원회 조직	77
[그림 III -2] 일본문화예술진흥회 심의위원회 운영구조	78
[그림 IV -1] IPA 분석 결과	92
[그림 IV -2] 중요도-만족도 분포도	94
[그림 IV -3] 심의위원 FGI 진행 사진	105
[그림 IV -4]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사진	115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 연구 범위

1. 대상적 범위
2. 내용적 범위

제3절 : 연구 방법

제4절 : 연구 추진체계

제5절 : 연구 항목

제6절 : 자문위원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지원심의 제도 전반에 대한 심층 연구 필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창작 및 향유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추진해 왔음.
 - 사업추진을 위해 그 간 심의위원 추천위원회, 책임심의관제, 심의위원풀 무작위추출제 등 다양한 방식의 심의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현재까지 지원심의제도 전반에 대한 심층진단 연구는 부족했음.
 - 제도 변동과정은 외부의 영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을 할 경우 대외 정당성 확보에 한계가 노정되었음.
- 지원심의제도의 객관성 확보 및 결과 투영도 향상 필요
 - 지원심의제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행정절차로 대외적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심도 있는 지원심의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 현 지원심의제도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 본 연구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에 수행되는 지원심의제도의 투명성, 공정성 및 결과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되었던 제도를 총괄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지원심의제도 운영방안 제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기존에 수행했던 지원심의제도의 장단점,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함.
- 현장 전문가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심의위원 풀 구축 및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지원심의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제2절 연구 범위

1. 대상적 범위

- 본 연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임. 이러한 연구 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지원심의회 초점을 맞추어 심의위원회, 심의 기준, 심의 절차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함.
- 이와 관련하여 유관기관, 중앙정부 등 지원심의 기준과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지원심의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심의위원, 현장예술계, 기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현 지원심의 제도와 운영 상의 한계와 문제점을 찾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

2. 내용적 범위

- 지원심의제도 현황 분석
 -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원심의제도 운영 변동과정 분석
 -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한 제도운영방식 간 비교분석(제도별 장단점, 문제점 분석, 보완점 등)
- 지원심의위원 풀 구축 및 운영방안
 - 발굴제, 추천제 등 구축 방식 및 검증방식, 위원 풀 업데이트 방식
 - 장르별, 분야별 구분, 중복장르 처리 방안, 자격검증위원회 구성·운영 등
- 평가방식 운영방안
 - 평가항목 진단, 최종결과 산출, 결과통보, 담당자 역할 등 심의운영방식
 - 장르별 특성을 반영한 특수평가항목 반영
-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 지원심의제도 평가, 심의위원 풀 구축 및 운영방안 등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예술계(유효설문 최소 100부 이상), 내부직원, 전문가 등 주요이해관계자 의견 조사
- 국내외 사례조사
 - 국내 유관기관 및 타 분야 지원심의제도 운영방식 분석
 - 국외 주요예술지원기구 지원심의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 도출
- 지원심의 제도 개선방안 제안
 - 심의제도 개선안 정리 및 대안별 관련규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사항
 - 기타 심의의 공정성, 투명성, 결과수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제안

제3절 연구 방법

□ 문헌조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제도와 관련된 시행 규칙, 심의기준, 운영 현황 등을 담은 보고서 및 문헌자료들을 중심으로 지원심의제도의 현황 및 발전과정을 분석하도록 함.
- 국내외 유관기관의 심의제도 운영 사례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여 향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제도를 개선·발전시키는 데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도출하도록 함.

□ 설문조사

- 설문조사는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예정인 예술가 및 예술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 지원심의제도에 관한 만족도, 결과 수용도, 문제점 및 개선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여 100건 이상의 유효응답으로 현 심의제도의 현황 및 개선점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도록 함.

□ 심의위원 F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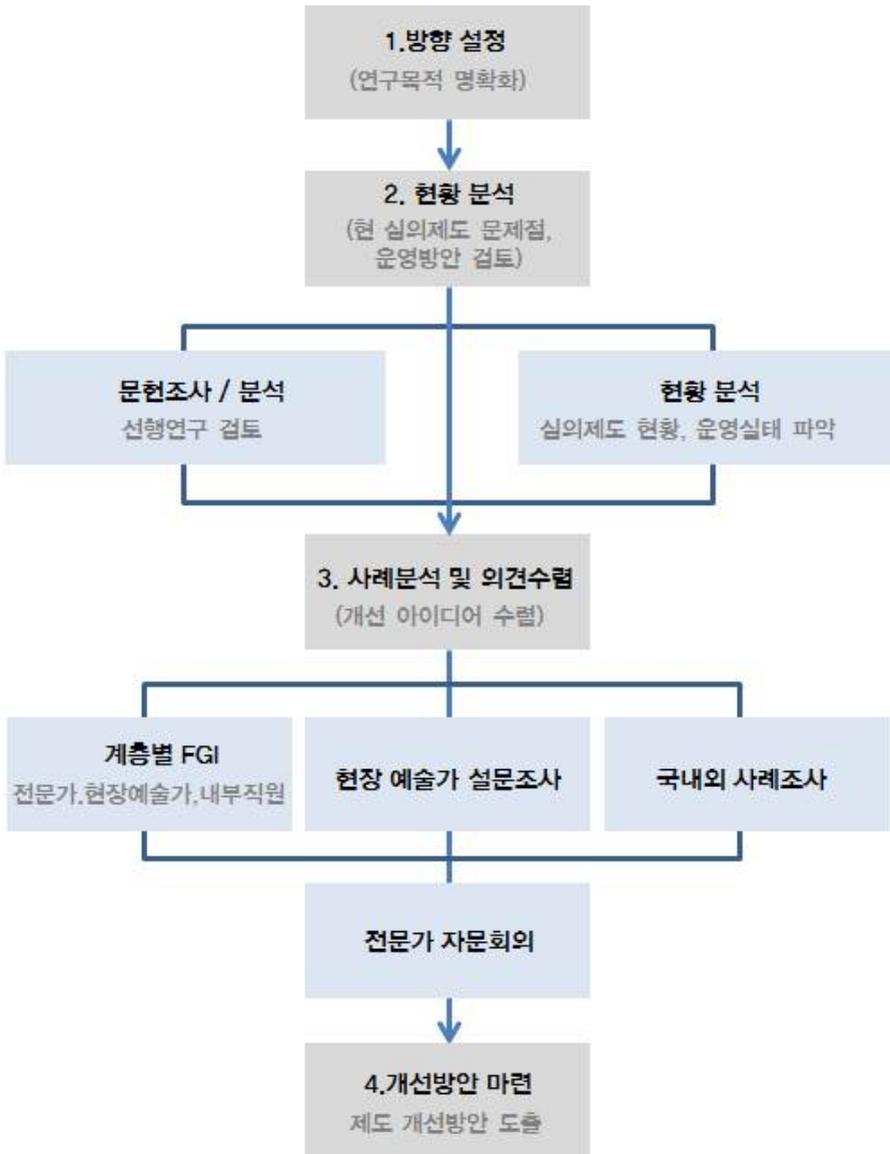
- 본 지원심의제도와 연관된 심의위원, 지원경험이 있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에게 현 심의제도의 기준, 내용, 절차, 개선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설계하여 보다 심도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 의견을 확보하도록 함.

□ 전문가 자문회의

- 타 기관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심의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관점을 통해 향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심의제도 운영에 보다 전문적인 의견을 확보하여 객관적인 관점에서 지원심의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제4절 연구 추진 체계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제5절 연구 항목

□ 설문조사

[표 I -1] 현장예술가 대상 설문조사 항목

구분	설문 항목	결과 도출
제도에 관한 인식	지원심의제도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지원심의제도 인지도 - 현 지원심의제도 기여도 - 현 지원심의제도 운영 적절성
	지원심의제도 사전안내 충분성	
	지원심의제도 기여도	
	지원심의제도 운영 적절성	
제도의 중요도 및 만족도	심의절차_공모 및 지원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지원심의제도의 중요성 - 현 지원심의제도의 만족도
	심의위원회_플 구성	
	심의위원회_구성 방법	
	심의과정	
	심의종료 후 절차	
문제점	현 지원심의제도에 관한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심의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향후 개선 방안	공모단계 중 개선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심의제도 개선 요구사항 - 지원심의제도 개선 아이디어
	심의위원회 확충 영역	
	심의위원회 구성 방법	
	지원심의제도 개선요구사항	
	지원심의제도 운영 개선아이디어	
응답자 특성	지원 경험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 연락처 - 지원 분야, 지원경험 횟수, 2017년 지원 여부

□ 심의위원 FGI

[표 I-2] 심의위원 FGI 항목

조사 영역	확인 내용
심의위원 활동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하가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지원사업과 사업내용은 대략 어떠합니까? -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시기, 횟수는 어떠합니까? -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배경은 어떠합니까?
심의 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회 구성의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활동시 심의위원들을 구성하는 절차와 방식은 어떠하였습니까? (시기별, 사업별 특징) - 심의위원 구성시 과정과 절차는 얼마나 공정,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심의위원 풀, 심의위원 후보자군 선정시의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전, 중, 후의 과정 - 전반적인 심의과정 중 문제점이 드러난 과정은 무엇이 있었고, 그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 심의 소요기간, 통보방법 등의 통일성은 어떠했습니까? - 전_ 심의를 위한 검토, 사전준비를 위한 충분한 여건이 제공되었습니까? - 중_ 심의유형(서류심사, 인터뷰 등)별 진행과정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후_ 절차의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를 위해 제시된 평가지표, 기준은 어떠했습니까? - 장르별 기준은 명확/적절/납득할만 하였습니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지원단체를 평가하기에 복합적인 측면이 고르게 제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르별 심의기준의 개선을 위해서 차후 방안은 어떻게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과 및 차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과정을 거친 지원자(단체)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 : 심의 결과의 수용, 의견수렴에 대한 방안 등 - 결과에 대한 의의 제기시 대처하는 방식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옴부즈맨, 심의결과 공개 방식 등)
발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 활동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 지원심의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기적으로 지원심의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원심의제도를 개선할 때 제도의 안정화와 지원자의 결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제6절 자문위원

□ 전문가 구성

[표 1-3] 전문 평가위원 구성

평가 위원	소속
윤○○	(사)한국문화기획학교 이사
이○○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 역할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지원
 - 지원심의제도 평가체계 관련 자문
 - 전문가 자문회의 참여
 - 지원심의제도의 보완 및 개선방안 제시

제2장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제도 운영 배경 및 목적

제1절 :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제도 운영 배경 및 목적

1.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배경
2.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목적

제2절 : 지원심의제도 운영 실태

1. 기본적 운영 방향
2. 연도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제도 변화 양상

제3절 : 지원심의절차에 따른 운영 현황

1. 심의위원 후보단 구성
2. 심의위원회 구성
3. 심의회의 진행
4. 심의 이후의 절차

제4절 : 심의제도 운영 현황 분석 (2016년 기준)

1. 심의 예산 및 규모
2. 심의 운영조직

제1절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회도 운영 배경 및 목적

1.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배경

가.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기금(문예진흥기금)은 1972년 8월 14일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이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조성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공공기금임.
-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문화예술진흥법 18조에 의한 기금지원 용도는 다음과 같음.
 -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 남북 문화예술교류, 국제문화예술교류
 -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
 -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 전시)진흥을 위한 사업
 - 그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2.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목적

가. 주요사업 목적

□ 예술 창작 지원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순수예술 분야 예술가(단체)의 창작활동 지원과 창작여건 개선으로 뛰어난 예술가 육성과 우수작품 생산 확대 및 국제적 프로젝트사업 기획확대 등을 통한 한국 예술 세계화

□ 예술 인력 육성

- 신진예술가와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기초예술 분야 성장동력 확충

□ 지역문화예술 지원

-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예술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중앙과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도모

□ 공연예술 활용 관광자원화

- 지역의 특성화된 공연예술제(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를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육성과 국민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전통 공연예술 활성화 및 이를 통한 해외 전략적 진출 도모

□ 문화예술 사회적 인식 제고

- 문화예술 기부프로그램 운영 및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으로 민간기부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분야 지원총량 확대 및 예술지원 재원의 다각화
- 문화예술 홍보와 통계자료 등 간행물 발간,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등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예술가치의 확산

제2절 지원심의제도 운영 실태

1. 기본적인 운영 방향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운영 규정」과 각 연도별 지원심의 운영지침에 따라 분야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절차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함.

[표 II-1]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운영 규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기금사업 공모 (제3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15일 이상 공고문 게시 지원신청 자격, 지원신청 부적격자, 지원신청 부적격사업, 부적격자 및 부적격사업 응모 시 처리, 지원신청 제한 등과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 지원심의기준을 안내
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	지원심의를 위한 분야별 또는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심의위원회는 외부 인사와 사무처 직원1인으로 5인에서 10인으로 구성 별도의 자문위원 또는 평가단을 두어 의견을 청취하여 심의에 반영할 수 있음
심의위원의 자격 및 선정요건 (제7조)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 및 이에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를 자격사항으로 명시 성별, 연령, 지역, 장르 및 경향별 형평을 유지하여 다양성 및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 분야별 심의위원 후보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문화일반 등) 심의위원 후보단 외에 문화예술 유관 공공기관 소속의 임직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심의위원 후보단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비공개

구분	내용
심의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제8조)	공정심의 서약을 통한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 수행 강조 (위반 시 10년간 심의위원 자격 정지) 심사위원의 심의 제척 사항 명시
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9조)	위원회 기능 · 기금사업 계획 및 지원방향 심의 · 지원심의의 기본 방침 및 지원심의 기준 · 분야별, 사업별 예산액 ·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금액 심의위원회 기능 · 분야별 및 사업별 지원심의 세부 방침 및 세부 심의기준 · 지원신청사업의 적격성 · 지원대상사업 우선순위 및 지원액 배정안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 10조)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할 수 있으나 2회 이상 연속 서면심의 불가 심의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
정보공개 (제11조)	심의위원 명단, 지원대상단체(개인)명 및 지원사업별 결정 금액, 심의평균평점을 공개하도록 함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운영규정은 크게 심의위원과 관련된 규정과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외 공모,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 전반적으로 심의위원과 관련된 규정이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으며 특히 자격기준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심의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에 대해 무게를 둔 경향이 있음.
- 심의위원의 자격은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을 최소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10년 이상의 해당 경력이 있는 경우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파악됨.

- 위원회는 성별·연령별·지역별·분야별 및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적절히 심의 위원이 안배되어 구성되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 시 심의위원 배경의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심의위원 후보단은 현재의 공정성을 위해 규정상 비공개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후보군의 전문성이 대외적으로 인정되어야 심의의 신뢰성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 후보단을 대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연도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제도 변화 양상

가. 2006년 지원심의제도

1) 개요

- 2006년까지 이루어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제도의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II-2] 2006년 지원심의제도 개요

구분	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11인)으로 구성된 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심의 방향 설정 내부결재 절차를 통해 적정한 심의위원 섭외·진행 8개 분야의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절차	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지원심의 기본방침 구성→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세부방침 결정→심의 및 지원대상 결정
심의기준 및 방법	공통 심의기준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예술적 수월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신청인의 사업 추진 능력
특징	다수 혜택사업, 직전년도 미지원 단체, 신설단체 등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모색 공통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강조하였으나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심의위원 선정 기준이 식견, 이해능력, 균형감각, 합리적 토의 가능 여부 등 다소 주관적인 기준이 포함됨

- 2006년 공모사업까지 운영되었던 심의는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세부 심의방침을 정해 종합심의를 거쳐 기금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2) 특징

□ 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심의 진행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기금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공모사업 기본 방침 및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확정하였음.
- 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하고 8개 분야(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다원예술·문화일반)별로 1인씩 선정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였음.
- 기금지원심의위원회는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의 기본 방향, 지원심의 기본방침,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 심의사항(지원 우선순위, 지원대상별 지원액 등)을 최종 확정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 심의 등을 결정함.

□ 공통 심의기준을 통해 심사

- 전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였으며 공통기준으로 사업의 예술적 수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신청인(단체)의 사업 추진 능력 등이 포함되어 있음.

[표II-3] 공통 심의기준 세부 내용

구분	내용
사업의 예술적 수월성	발표되는 프로그램의 창의성 기획, 연출, 구성 등의 참신성 및 독창성 제작진과 참가단체(개인)의 예술(문화)적 기량 연례적 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과의 차별성 등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사업목적과 활동의 연계성 계획구현을 위한 추진전략의 적정성 사업 활동의 구체성, 적합성, 실현가능성 소요자원 조달 방법과 지원 신청액의 적정성 및 타당성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사업목적과 기금지원목표의 부합도 성과목표의 타당성 및 파생결과의 구현도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 및 지원목표의 달성도 전년도 사업이 해당 분야 발전에 끼친 기여도 및 파급효과(연례적 사업)
신청인(단체)의 사업 추진 능력	추진주체의 역할과 기능적격성 추진주체의 유사사업 추진실적과 성과

- 대체적으로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수행 능력, 이후의 파급효과에 비중을 두고 심의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보임.

나. 2007~2008년 지원심의제도

1) 개요

- 2007년에서 2008년까지 이루어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제도의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II-4] 2007~2008년 지원심의제도 개요

구분	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금지원심의위원회 폐지 후 분야별 심의위원회만 운영 심의위원 추천위원(분야별 2인 내외)를 구성하여 분야별 2~3배수 후보안 마련
심의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원칙 확정→심의위원추천위원 구성→심의위원 후보 추천→심의위원 확정 및 위촉→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진행→지원대상 결정
심의기준 및 방법	기존의 공통심의기준 폐지 이후 사업별 지원심의기준 마련 채점제 운영 기 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 심의위원의 심의기피제도 운영
특징	일정조건을 구비한 법인, 단체에게 적용된 가점 부여제도 폐지 위원회가 지원심의 제반사항을 최종 심의 의결하도록 하여 의사결정 주체 일원화

- 이 시기에는 기금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심의위원추천위원을 통한 분야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졌음.

2) 특징

□ 기금지원심의회 폐지

- 문화예술위원회 위원회(11인)과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기금지원심의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이원적 구조는 의사결정 주체를 혼돈스럽게 만들 우려가 있음에 따라 폐지하고, 의사결정 주체를 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지원심의의 제반사항을 최종 심의·의결하도록 함.

□ 공통 심의기준 폐지 이후 사업별 지원심의기준 마련

- 기존의 공통 심의기준을 폐지하고 분야 및 사업별 지원심의기준을 마련하여 분야와 사업에 맞춘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심의회도 운영을 위하여 심의와 관련한 제반 절차의 규정화가 추진되었음.

□ 심의위원추천위원단을 구성하여 심의위원 후보 추천 후 위촉

- 분야별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심의위원추천위원 제도를 신설하여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성한 분야별 2인 내외의 심의위원추천위원을 통해 2~3배수 후보안을 마련하여 위원회를 통해 심의위원을 확정하도록 함.

□ 심의위원 심의기피제도 운영

- 심의대상인 지원신청단체 및 개인과 해당 분야에 위촉된 심의위원이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시 심의기피제도를 통해 해당 심의위원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다. 2009년 지원심의제도

1) 개요

- 2009년에 이루어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제도의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II-5] 2009년 지원심의제도 개요

구분	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 및 담당자 추천을 반영한 2,000명 내외의 풀 구성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추천제, 위원 및 담당자 추천 반영
심의절차	심의위원 풀 구성→심의위원회 구성 및 원칙 확정→심의위원추천위원 구성→심의위원 후보 추천→심의위원 확정 및 위촉→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진행→지원대상 결정
심의기준 및 방법	심층심의제(인터뷰 심의, 실연심사, 현장실사 심의) 운영 및 강화 평가기술제, 전체사업 심의기피제 등을 통한 심의책임성 강화
특징	심의위원 풀을 구체적으로 구성하여 보다 다양한 후보군 내에서 적합한 심사위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추천을 통해 선정된 심의위원의 전문성 검증이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 2009년 지원심의제도는 심의위원추천제를 폐지하고 심의위원 풀을 구성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층심의제, 평가기술제 등을 적용하여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특징

□ 심층심의제 운영 등 심의책임성 강화

- 기존 서류 심사 위주로 진행되던 심의제도에서 일부 사업에 한해 인터뷰 심의, 실연심사, 현장실사 심의를 도입하여 보다 심층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또한 심의회피체를 확대하여 전체 사업에 적용하였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기술제를 도입하여 심의 과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였음.

□ 심의위원 풀 구체화

-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추천제, 위원 및 담당자 추천을 반영한 심의위원 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 분야별 참신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 2,000명 내외를 선정하여 관리함.
- 특히 심의위원 자격 및 선정 기준과 구성 원칙을 신설 또는 재조정하여 심의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 심의위원 풀을 구성하기 위한 후보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음.
- 문화예술의 창작(연기, 연주 포함)·비평·연구·기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인사
- 문화일반·복지, 지역문화, 문화정책, 예술경영·행정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인사
- 문화예술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인사
-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인 인사
- 위원회 심의위원, 평가위원, 경력자
- 문화예술분야 대학 전임강사 이상
- 상시추천제를 통해 추천된 인사

□ 평가기술제 도입

- 지원심의위원회 명의로 평가의견을 기술하고 지원신청인이 요구할 경우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평가기술제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지원심의의 투명성 및 심의위원의 책임성을 향상하고 결과 수용성을 제고하도록 함.

라. 2010~2016년 지원심의제도

1) 개요

- 2010년에서 2016년까지 이루어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제도의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II-6] 2010~2016년 지원심의제도 개요

구분	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책임심의위원회도 도입을 통한 개별사업 심층 심의 및 지속적 평가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10년 이상 활동한 각 분야별 전문가로 자격 요건 강화
심의절차	분야별, 사업별 외부인사 3배수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부, 외부 책임심의위원 위촉→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진행→지원대상 결정
심의기준 및 방법	계획-집행-성과단계별 기본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별 가중치 및 세부평가 내용 설정 사업계획의 충실성, 실현가능성, 타당성, 기여도 및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설정
특징	지원사업 상시공모제 시행하여 지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자 함 책임심의위원을 통한 소관분야 사업 모니터링 및 지원신청 상담,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업의 지속적 관리 기반 마련 책임심의위원의 역할이 확장됨에 따라 심의위원의 균형성 및 객관성 검증 필요성 확인

2) 특징

□ 책임심의위원회제도 도입

- 책임심의위원회제도는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개별 사업에 대한 심층적 심의와 지속적 평가관리를 위한 상시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됨.
- 책임심의위원회는 분야별 또는 사업별 외부인사 4인과 사무처 지원 1인으로 구성되며, 이 중 외부인사는 서울 이외 지역 인사가 최소 1명 이상 포함되어야하고, 기존 심의위원 풀 후보군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강화된 자격기준으로 선출됨.
- 문화예술의 창작(연기, 연주, 스태프 포함) · 비평 · 연구 · 기획 · 교육 · 언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인사
- 문화일반 · 복지, 지역문화, 문화정책, 예술경영 ·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인사
-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인사
-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인사
- 사무처 직원은 10년 이상 근무자 대상
- 책임심의위원회제도를 통해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닌 책임심의위원이 지속적으로 소관분야 사업을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여하고 지원신청 상담과 자문에도 참여하게 하여 사업의 지속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음.

□ 심의기준 변경

- 계획단계, 집행단계, 성과단계별 기본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별 가중치 및 세부 평가 내용을 설정하여 심의하도록 함.

□ 지원사업 상시공모제 시행

- 기존 연 1회 정기공모만 추진하였던 지원사업을 장기 기획사업 등 예술현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국제교류지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기공모 이후 상시공모를 추진하여 지원대상이 보다 확대되고 다양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마. 2017년 지원심의제도

1) 개요

- 2017년 이후의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제도의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II-7] 2017년 지원심의제도 개요

구분	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위원후보군제를 도입하여 주요 예술 협/단체 대상 심의위원 후보자 공개 추천제도 도입 심의위원 후보군에서 필요한 심의분야, 세부장르 등 고려 항목을 기준으로 인원 안배 후 항목별 5배수 내외 위촉대상자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심의위원 선발
심의절차	예술계 공개 풀 추천제를 통한 심의위원 풀 구성→분야, 장르 등 항목별 5배수 내외의 위촉대상자 무작위 추천→심의위원 위촉→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진행→지원대상 결정
심의기준 및 방법	심층평가 및 계량평가 확대 적용 전문가 및 관객평가결과를 지원심에 반영 지원심의 관련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 도입
특징	무작위 5배수 추천을 통해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선정과정의 공정성 제고 공개 심의위원 추천을 통해 다양한 개인/단체의 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

2) 특징

□ 심의위원 후보자 공개추천제도 도입

- 보다 실효적이고 현장중심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계 현장으로부터 공개추천을 받은 적격인사를 포함하여 심의위원 후보군을 구성하도록 함.
- 현재 예술계 협회나 단체를 통한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한적이라는 상대적 한계가 있어 심의위원 추천제도의 투명성 및 개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심의위원 후보 무작위 추천 방식 도입

- 심의위원 선정은 심의위원 후보군 풀을 구성하여 심의 대상 사업에 적합한 분야 및 세부분야를 설정하여 무작위 방식으로 5배수의 심의위원 후보를 감사부 입회 하에 추천하고 예술지원 소위원회와 협의하여 섭외순위를 정해 위촉하도록 하여 심의위원 선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다만 무작위 추출로 인해 심의위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가 상대적으로 모호하며, 심의위원에 대한 자격검증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 도입

- 법조·행정·경영·언론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예술가 및 예술 단체가 이의신청한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있어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을 조사하도록 하여 심의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심의제도를 보다 안정화하고자 함.

제3절 지원심의절차에 따른 운영 현황

1. 심의위원 후보단 구성

- 2017년 기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계 내 84개 주요 예술 협회, 단체로 추천요청서를 발송하고 62개 단체로부터 총 496명의 추천이 이루어졌으나, 그 중 중복추천 및 자격기준 미달을 제외한 공개추천 후보단 459명을 구성함.
- 이에 공개 추천을 받은 인사를 포함, 기존 후보단의 분야를 재편하여 후보단 총 943명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음.
- 최종 심의위원 후보단 인원 대비 공개추천 후보단 비율은 48.67%로 나타났으며 각 분야별 후보단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II-8] 분야별 심의위원 후보단 현황

(단위 : 명)

분야	기존 후보단	공개추천 후보단	중복 인원	최종 갱신 결과
문학	112	94	8	198
시각예술	89	101	20	170
연극뮤지컬	94	85	26	153
무용	59	63	19	103
음악	32	45	3	74
전통예술	68	39	10	97
문화복지	14	6	0	20
문화일반	102	26	0	128
계	570	459	86	943

- 2017년 공개추천을 통해 보완된 심의위원 후보단은 문학분야의 심의위원 후보가 많은 편이고 문화복지 분야의 심의위원 후보는 다소 적게 구성되어 있음.
- 이처럼 분야마다 후보단 인원이 상이함에 따라 사업의 규모 및 각 분야별 사업 구성 현황에 맞춰 심의위원 후보단의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심의위원 후보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협회와 단체뿐만 아니라 공개추천제도를 통해 보다 다양한 층위의 심의위원 후보단을 구성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2.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문화복지, 문화일반 등 각 심의분야별 또는 심의유형별로 심의위원 5~10인을 위촉하여 구성함.
- 심의위원 후보군에서 필요한 심의분야, 세부장르, 기타 고려사항을 감안하여 인원을 안배한 후 각 항목별로 5배수 내외의 위촉대상자를 감사부 입회하여 무작위(랜덤)추첨방식을 통해 선발하도록 함.
- 해당 분야 위원과 협의하여 섭외 순위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섭외하여 심의위원 위촉함.
- 수락 거절 등에 따라 5배수 위촉대상자 모두 섭외가 안 될 경우에는 해당 항목 후보군 내에서 추가로 위촉대상자를 선발하여 섭외를 추진함.
- 2017년 정시공모를 기준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여성 심의위원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심의위원 구성 비율이 소폭 상승하였고, 심의위원 연령대는 40년대생과 50년대생 심의위원 비율이 하락하고 70년대생 이후의 심의위원 비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전반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 연령대가 젊어지는 경향을 보임.

[표 II-9] 전년대비 심의위원회 구성 비율(2017년 정시공모 기준)

구분	여성비율	지역비율	생년				
			40년대생	50년대생	60년대생	70년대생	80년대생
2016년	32.67%	22.66%	4.67%	32.67%	48.00%	14.67%	0.00%
2017년	36.49%	29.17%	3.13%	23.96%	43.75%	26.04%	3.13%
증감	3.82%p	6.51%p	-1.54%p	-8.71%p	-4.25%p	11.37%p	3.13%p

- 향후 지역, 성별, 연령대별 심의위원 구성 비율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맞춰갈 필요가 있으며 이는 심의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됨.

3. 심의회의의 진행

- 지원심의회의에서는 사업별 지원심의 세부방침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신청사업에 대한 지원 적정성을 심의하여 지원대상사업 선정과 지원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 심의회의는 심의위원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시 개회가 가능하며, 심의위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시 의결이 가능함.
- 심의회의의 원활한 진행 및 업무 지원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 또는 담당 직원이 담당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의의 진행과 심의관련 자료들을 관리 및 결과를 보고해하는 업무를 담당함.
- 심의회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신청된 사업들에 대해 필요한 객관적 정보 공유 목적의 논의 이외에는 특정 신청단체나 사업에 대한 지원적격 여부를 제안하거나 평가하는 발언을 금지하고 개별 심의위원이 사업별로 심사 평가하여 채점하도록 함.
- 또한 지원신청단체 및 개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심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은 해당 신청단체 및 개인의 심의에 관여하지 않게 하여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심의회피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표II-10] 지원심의의 진행 절차

구분	회의주체	회의내용
1단계	위원회	기금사업 지원계획 및 지원방향 확정 지원심의 기본방침 및 지원심의기준 확정 사업별·분야별 예산배정기준 확정
2단계	지원심의회의	사업별 지원심의 세부방침 결정 신청사업에 대한 지원 적격성 심의 (내용의 우수성, 수행역량, 기대효과 등 사업수행적 관점)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금액 배정
3단계	2차 지원심의회의 (해당사업)	인터뷰 심의(선택) 심의대상사업에 대한 지원 적격성 심의 (지원목적 부합성, 파급효과,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관점)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금액 배정
4단계	위원회	사업별 지원대상사업과 지원금액 최종 심의·확정

4. 심의 이후의 절차

- 심의 이후 결과는 한국예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며 공지내용은 공모사업 지원선정사업 내용, 분야별 심의위원 명단 및 종합심사평 등임.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에 따라 지원대상단체(개인)의 개별 요청시 당사자에게 심의내용 또는 심의 평점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지원심의 결과 발표 이후 심의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이의제기 신청을 15일 이내에 진행할 수 있음.
- 지원심의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시, 독립적으로 구성된 외부 옴부즈만이 해당 심의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회신하도록 함.
- 옴부즈만은 법조·행정·경영·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되며, 지원심의와 관련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조사,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함.

[표II-11] 지원심의 옴부즈만 구성 현황(2017 기준)

성명	생년	분야	현직	주요경력	비고
서○○	1960	법조	조선대 법학과 교수	-	광주 전남
이○○	1967	법조	법무법인 시공 변호사	문예위 리스크관리 위원회	서울
이○○	1962	행정	신구대학교 교수	2016 경영평가 지표개선단	서울
손○○	1958	언론	국민일보 객원논설위원	인덕대 교수	서울
유○○	1948	감사	현 예술위 감사자문위원	전 감사원 특별조사 국장	서울

- 2017년 지원심의 신청 기간은 15일간(2월 8일~22일) 이루어졌으며 이의신청 접수는 4개 사업에 관하여 9건의 이의제기가 접수되었음.
- 현재 옴부즈만 제도를 통한 이의제기는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의제기 이후의 환류 과정을 구체화하여 이의제기를 통한 심의제도의 공정성이 보다 보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4절 심의회도 운영 현황 분석 (2016년 기준)

1. 심의 예산 및 규모

□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

- 전체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공모예산으로 배정된 금액은 2016년 기준 약 451억 원이며, 그중 사용되지 않은 잔여 예산을 제외하면 약 428억원으로 구성됨.
- 총 8개 지원분야 중 선정건수가 가장 높은 분야는 시각예술분야(230건)이며, 가장 많은 결정액 비율을 차지한 분야는 예술일반 분야를 제외하면 연극분야가 약 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현재 분야별 편중되어 있는 신청 건수, 선정비율, 결정액 등으로 미루어보아 상황에 따른 종합적인 균등분배방안 마련이 고려됨.

[표II-12]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예산 현황 (2016년 기준)

(단위 : 천원, %)

분야	지원 결정 현황		
	선정 건수	결정액	비율
문학	46	1,108,600	2.6%
시각예술	230	3,715,000	8.7%
연극	224	5,588,700	13.0%
무용	140	2,780,900	6.5%
음악	143	3,567,600	8.5%
전통예술	147	2,934,800	6.8%
뮤지컬	21	2,096,000	4.9%
예술일반	87	21,053,500	49.0%
계	1,038	42,845,100	100%

□ 심의 운영 예산

- 2016년 기준으로 심의 운영을 위한 전체 예산은 약 3.4억원으로 추정됨.
- 그 중 심의위원 사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약 2.5억원이 심의위원 사례비로 지출됨.

[표II-13] 심의 운영 예산 현황 (2016년 기준)

(단위 : 원)

장르	총액	심의위원 사례비		심사 운영비		
		금액	비율	자료제작 / 배송비	심의기기 임차비	집행비 / 간담회비
문학	27,381,300	11,160,000	40%	8,744,500	-	7,476,800
연극	47,774,000	39,200,000	82%	4,941,600	1,584,000	2,048,400
무용	35,819,140	29,210,000	81%	634,970	3,916,000	2,058,170
시각	42,081,426	30,570,000	72%	8,632,256	309,000	2,570,170
뮤지컬	33,610,930	20,180,000	60%	233,700	2,940,000	10,257,230
음악	45,662,850	33,380,000	73%	4,069,780	1,685,000	6,528,070
전통	27,534,370	24,390,000	88%	1,107,920	630,000	1,406,450
예술일 반	79,974,855	64,940,000	81%	9,164,375	2,440,000	3,430,480
기타 (통합 심의 1건)	5,175,770	4,900,000	94%	57,420	-	218,350
전체	345,014,641	257,930,000	74%	37,586,521	13,504,000	35,994,120

□ 심의 규모

- 2016년 기준 전체 심의건수는 1,038건이며, 지원 신청건수는 3,303건으로 약 31%의 선정비율이 나타남.
- 현재 분야별 약 20명 내외의 심의위원이 배치되어있으나, 지원신청건수를 고려한 심의위원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않으며, 지원 신청건수 대비 심의위원들의 심의건수가 가장 높은 분야는 시각예술분야로 파악됨.

[표II-14] 심의 규모 (2016년 기준)

분야	지원 신청건수	지원 선정건수	심의위원 수	위원 1인당 평균 심의건수
문학	141	46	22명	6.4개
시각예술	731	230	20명	36.5개
연극	700	224	29명	24.1개
무용	341	140	19명	17.9개
음악	411	143	28명	14.6개
전통예술	423	147	26명	16.2개
뮤지컬	115	21	15명	7.6개
예술일반	441	87	39명	11.3개
계	3,303	1,038	198명	16.8개

□ 심의위원 사례비 집행기준

- 심의위원들은 심의 건수를 기준으로 심의료가 다르게 책정됨.

[표II-15] 심의위원 사례비 집행기준 (2016년 기준)

구분	신청건수 기준	심의료 단가	비고
서류 심사	1 ~ 30건	300,000원	-
	31 ~ 50건	500,000원	
	51 ~ 80건	600,000원	
	81 ~ 130건	700,000원	
	131 ~ 200건	800,000원	
	201 ~ 300건	900,000원	
	301 ~ 400건	1,000,000원	
	401 ~ 500건	1,100,000원	
	501 ~ 600건	1,200,000원	
	601 ~ 700건	1,300,000원	
	701 ~ 800건	1,400,000원	
801 ~ 900건	1,500,000원		
인터뷰 심사		200,000원	전 분야

2. 심의 운영조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체 운영조직은 현재 1처 5본부 16부로 구성되어있음.

[그림 II-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도



□ 부서별 인원 현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총원은 174명이며 부서별로 약 10명 내외의 조직분포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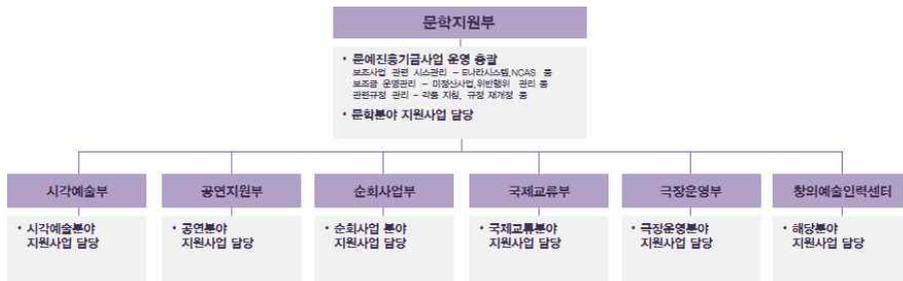
[표 II-16] 부서별 인원 현황

총원	위원 장	사무 처장	부서														
			경영전략본부			문학시각예술본부			공연예술본부				문화나눔 본부		예술확산 본부		국제 교류 부
			기획 조정 부	성과 평가 부	재무 관리 부	문학 지원 부	시각 예술 부	예술 자료 원	공연 지원 부	극장 운영 부	무대 예술 부	순회 사업 부	문화 누리 부	문화 예술 후원 센터	협력 개발 부	창의 예술 인력 센터	
174	1	1	16	6	24	10	15	13	14	9	19	11	9	7	4	8	7

□ 문예진흥기금 담당업무 조직 구조 (2017년 기준)

- 독립된 심의 전담조직을 두지 않았으며,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를 각 부서 별 성격에 맞춰 분산 배치함.
- 이 중 문화지원부가 문예진흥기금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 총괄업무를 담당하며, 총 6개 부서(문화지원부, 시각예술부, 공연지원부, 순회사업부, 국제교류부, 창의예술인력센터)가 각각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나누어 진행함.
-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 전반을 담당하는 문화지원부의 업무범위가 광범위하여 다양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 대두됨.
- 심의 장르별, 직무중심별 업무구분을 통해 적합한 형태의 조직구성 방안 마련이 고려됨.

[그림 II-2] 문예진흥기금 담당업무 조직 구조





제3장

사례 분석

제1절 : 국내사례

1. 한국연구재단
2. 영화진흥위원회
3. 한국콘텐츠진흥원
4. 국내 광역재단 (16개)
5. 국내사례 시사점

제2절 : 해외사례

1.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Arts Council England)
2. 일본예술문화진흥회
3. 국립예술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4. 해외사례 시사점

제1절 국내 사례

1. 한국연구재단¹⁾

가. 단체 개요

1) 개요

- 한국연구재단은 전 학문분야를 아우르는 국가 기초연구지원시스템의 효율화 및 선진화를 목적으로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하나로 통합되어 2009년 새롭게 출범한 국가대표 연구관리 전문기관임.
- 미션 : 창의적 연구와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 비전 : 국가 R&D혁신을 선도하는 연구지원 글로벌 리더
- 목표 :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 우수 연구 인적자원 확대, 연구 투자효율성 극대화, 혁신 기반 사회적 가치 실현

2) 지원제도 현황

- 예산현황 (2017년 기준 / 총 4조 8,017억원)

[표Ⅲ-1] 한국연구재단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비
대학교육역량강화 및 인력 양성	11,283
기초연구진흥	9,620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7,106
학술연구역량강화	6,299
우주개발진흥	4,923
원자력진흥 및 안전	2,571
연구진흥 및 기반구축	5,212
국제협력	457
기타	546
총 사업비	4조 8,017억원

1)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index>

나. 심의 현황

1) 심의 기본방향 및 방식

□ PM제도의 운영

- 한국연구재단은 PM제도라는 자체적인 연구사업 관리제도를 마련하여 2009년부터 시행해 옴.
-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사업관리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통해 연구지원사업의 효과 확대 및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업무 구분에 따라 상근 PM(본부장, 단장), 비상근 PM(책임전문위원,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직책별 역할 및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Ⅲ-2] 한국연구재단 PM 구성 및 역할

구분		인원(명)	역할
상근 PM	본부장	3	본부 소관 사업 총괄 및 조정
	단장	17	학문분야별 사업기획 및 관리 등
	소계	20	
비상근 PM	책임전문위원	44	전문위원 그룹 대표 및 단장 업무 지원
	전문위원	657	심사자 추천, 온라인 평가결과 Review, 기획 등
	소계	701	
계		721	-

- 총 721명의 PM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상근PM은 약 20명으로 그 중 본부장은 본부 소관 사업 총괄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단장은 학문분야별 사업기획 및 관리를 주된 역할로 함.
- 비상근PM은 약701명으로 그 중 책임전문위원은 전문위원 그룹을 대표하고 단장업무 지원을 담당하며, 전문위원은 심사자 추천, 온라인 평가결과 리뷰 등의 역할을 담당함.
- 한국연구재단 내 6개 본부 중 3개 본부(기초연구본부, 인문사회연구본부, 국책연구본부)에 상근PM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Ⅲ-3] 한국연구재단 분야별 PM 운영 현황

구분	인원				비고
	본부장	단장	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기초연구본부	1	5	24	295	자연과학단, 생명과학단, 의학학단, 공학단, ICT·융합연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1	3	20	244	인문학단, 사회과학단, 문화융복합단
국책연구본부	1	9	-	118	신약/차세대바이오 / 뇌·첨단의공학 / 나노·소재 / 정보·융합기술 / 에너지·환경 / 우주기술 / 원자력/기술사업화
계	3	17	44	657	

2) 심의 절차

- 심의절차는 크게 선정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의 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추진절차가 다음과 같이 진행됨.

[표Ⅲ-4] 한국연구재단 심의 절차

구분	추진절차	세부내용
선정평가	요건 심사	연구책임자 신청자격등 요건 검토
	전문가 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또는 별도로 구성된 전담평가단에 의한 평가 실시
	전문기관 평가	PM협의체에서 전문가 평가결과 종합·조정 및 선정(안) 검토 분야별 선정과제 수 배분(안) 마련 및 연구비 조정
	위원회 심의	사업추진위원회(종합심사단 등) 최종확정 지원예산 규모 내의 과제 확정
	선정 통보	재단/미래부·교육부(→ 전문기관) → 주관연구기관 선정통보 : 연구비 조정내역 등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기관 → 한국연구재단 통보 접수 후 7일 이내 이의신청
중간평가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주관연구기관)
	연차점검	해당분야 PM 주도로 연차점검 실시
	계속지원 여부 결정	진도관리결과 및 지원연구비 규모 등 결정 연구기관에 진도관리결과 통보
최종평가	최종 평가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 자체평가의견서 등 제출
	전문가 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평가 실시
	전문기관 평가	평가점수와 평가의견을 바탕으로 과제별 순위 및 연구비 결정 전문가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안) 마련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기관 한국연구재단 통보 접수 후 7일 이내 이의신청

3)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PM의 역할에 따라 심의위원(평가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침.

[표III-5] 업무절차별 PM 역할

구분	내용	주체
계획 수립	평가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평가방법, 예산배분, 선정규모 등 계획 수립	단장
↓		
패널 구성	신청과제의 패널 구성 및 분야별 필요 평가자 수 결정	(책임)전문위원 · 단장
↓		
평가후보자 추천	복수의 전문위원이 2~3배수 무순위 추천	전문위원
↓		
평가후보군 구성	3배수를 중심으로 가,나,다 군 구성	책임전문위원 · 단장
↓		
평가후보군 우선순위 결정	가,나,다 군 중 평가자 섭외순서 지정	단장 · 본부장
↓		
평가자 확정	평가군 순서대로 평가자 섭외 : 직원 평가자 확정 결재 : 본부장 전결	본부장

- 단장과 책임전문위원이 평가단계별 추진계획 및 분야별 평가자 수 등을 결정함.
- 이에 따라 전문위원이 2,3배수의 평가후보자를 추천하며, 단장 · 본부장이 군 (가, 나, 다군)을 구성하여 섭외순서를 지정함.
- 평가군 순서대로 섭외를 진행하여 본부장 전결로 평가자를 확정함.

다. 심의 특징

- PM제도 운영을 통한 전문적 평가심의 프로세스 구축
 - PM제도를 통해 학문분야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의 프로세스를 구축함.
 - 평가자 풀 구축시 사업선정의 평가자 선정기준 보다 강화된(연구성과)기준을 적용하여 평가자의 전문성을 제고함.
 - PM 후보군 구성시 학회 추천 및 전문가 발굴을 통한 후보자 자격을 검토함.
- 선정 예비공고(선정 확정 전 공개 검증) 및 평가결과(심사의견) 공개
 - 선정 확정 전 예비 선정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사전 검증 및 예비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 또한 평가결과에 대한 심사의견을 공개하여 심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함.
- 평가자 공개 / 평가자 이력관리 실시
 - 평가자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평가실적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여 우수평가자를 확보하고 활용해감.

2. 영화진흥위원회²⁾

가. 단체 개요

1) 개요

- 미션 : 한국영화 진흥을 통한 국민의 문화행복 실현
- 비전 : 융성하는 영화산업, 세계로 향하는 한국영화
- 목표 : 창작역량 강화 / 누림, 상생 생태계 조성 / 신규, 부가 시장 활성화 / 소통, 협치의 경영혁신

나. 지원제도 현황

□ 예산 현황 (2016년 기준 / 약 632억원)

[표Ⅲ-6] 영화진흥위원회 예산 현황

(단위 : 천만원)

구분	사업비
영화제작지원	16,164
영화산업 유통지원	9,857
투자 / 출자사업	10,000
국제/국내 영화제 육성	4,022
인적자원 육성관리	5,090
첨단영화 기술육성	5,555
영화정책지원	1,083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2,538
영화향유권 강화	3,232
영화전보시스템 운영	1,828
극장용 애니메이션 지원	1,500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2,420
예산 합계	약 632억원

2) 한국영화진흥위원회 <http://www.kofic.or.kr/kofic/business/main/main.do>

다. 심의 현황

1) 심의 운영 조직

- 담당부서 : 심사지원팀
- 설립 : 2015년 신설 (위원장 직속)
- 직원수 2명(전문위원1인+팀장급1) / 기관 총원 : 113명
- 연간 심의 약 150건
- 심사위원 풀 관리(등록자 자격 검증, 서류 보완 요청, 단체 홍보협조 공문 발송 등)
 - 심의 진행 일체
 - 매 심의 시 심의위원 후보 추출
 - 서울 심의장소 관리 : 영상미디어센터(충무로 소재)내 화상회의실

2) 심의위원 후보군(pool) 구성

- 심사위원후보 온라인등록시스템에서 관리/ 풀 개선 및 심사위원 온라인 신청제도 도입.(15`~16`년)
- 직접 홈페이지에 신청 등록함.(자격기준에 따른 경력사항 기재 및 증빙)
- 1차 서류검증(심사지원부), 2차 적격여부 검증(사업부서), 최종확정 단계를 거침.
- 후보인원 약 500명으로 구성됨.

3)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자격조건은 세부 심의분야별로 다름.
- 위원은 5명이상 외부전문가 비율 50%이상, 여성 비율 30%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임. 단,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심사위원 수 조정가능.
- 심사지원팀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대 3배수까지 무작위로 추출하며 순서에 따라 섭외순서를 지정함.

4) 심의회의 진행

□ 화상회의를 통한 회의 진행

- 2015년 서울에 화상회의 하드웨어 구축
- 회의진행은 서울 소재 심사지원팀에서 진행, 사업부서는 부산에서 화상으로 사업설명 진행

□ 토론식 심의 적용

- 채점 전에 미리 약식투표 등을 통하여 선정대상을 결정한 후에 채점하는 경우도 있음.
- 사업별로 세부적인 심사방식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온라인채점이나 OCR카드 등 쓰지 않고 일반 서면채점 방식

라. 심의 특징

□ 심의위원 명단 공개

- 영화진흥위원회는 심사 자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대신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으로 일정 부분의 공정성을 확보하려 함.

□ 심의위원 참여제한

- 심의 위원 또는 심의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 또는 지원사업의 피심의인이 되거나 피심의인과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등의 관계에 있는 때, 피심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심의위원회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 또는 단체의 발기인·이사·감사·주요 임원 기타 주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심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함.
- 또한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등이 해당 안건 또는 지원사업과 이해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나 위원 등이 해당 안건 또는 지원사업의 이전 논의·심의 및 심사 등에 관여하였을 때 해당

심의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함.

※ 연간 심의 참여횟수 제한은 없음.

※ 심사 당일 기피대상 사업이 전체 중 1개라도 있을 시 해당 심의위원은 전체 사업에 대한 심의 포기

3. 한국콘텐츠진흥원³⁾

가. 단체 개요

1) 개요

- 미션 : 공정과 상생, 소통과 공감의 사람중심 콘텐츠산업 구현
- 비전 :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

나. 지원제도 현황

□ 예산 현황 (2018년 기준 / 약 2551억원)

[표Ⅲ-7]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비
콘텐츠진흥1본부	약 873.6
교육사업본부	약 97.5
콘텐츠코리아랩본부	약 309.7
문화기술진흥본부	약 503.6
글로벌비즈니스 지원본부	약 253.9
콘텐츠진흥2본부	약 512.6
	약 2551.1

다. 심의 현황

1) 심의 운영 조직

- 담당부서 : 심사평가지원팀
- 설립 : 2014년 신설 (부원장 직속)
- 직원수 6명 / 기관 총원 : 287명

3)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kocca.kr/cop/main.do>

- 심사위원풀 관리(업데이트 요청 등), 선정평가위원 섭외(연락), 심의 준비(노트북, 유의사항 등)

2) 심의위원 후보군(pool) 구성

- 전문가 풀관리 시스템에서 관리.
-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신청 등록. (자격기준에 따른 경력사항 기재 및 증빙)
- 심의위원 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자들의 자격 검증.
- 후보인원 약 2-3000명으로 구성됨.
- 2015년 평가위원 역량평가를 도입함.
 - 사업담당부서와 심의평가부서에서 각각 심의위원 평가
 - 각 평가별 과반수 이상 항목에서 불량 또는 매우 불량 판정 시 평가위원 배제

3)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자격조건은 산업계는 5년 이상 경력자, 학계는 2년제대학 이상 전임강사 3년이상의 경력자, 언론계는 3년이상 경력자로 구분함.
- 위원은 7명으로 구성 외부전문가(6명)내부위원(1명)으로 구성하며, R&D 사업은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함.
- 전문가풀관리시스템에서 3배수 무작위 추출하여, 추출번호 순으로 섭외요청.

4) 심의회의 진행

□ 심의위원 개별 채점 방식을 통한 회의 진행

- 심의 진행 시 심의위원간 토론이나 의견 등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로 진행되며 이는 사업담당부서의 간사가 통제하도록 함.
- 이는 심의의 방향이 한사람의 의견으로 모아져버리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음.

□ 모든 심의위원의 사업별 개별평가의견 적시

- 이 의견은 외부 또는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공개되지 않음.
- 개별 평가의견은 사업 담당자가 그 단체와 기술협약, 약정을 체결하거나 사업 진행시 반영함.

□ 심의위원 명단은 비공개

- 심의위원 공개 시 평가의 공정성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현장 반발 없음.

라. 심의 특징

□ 지원단체별 가산점 부여

- 지역(비수도권)소재 콘텐츠 업체인 경우 5% 이내
-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평가 시 5% 이내
-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국내 광역재단 (16개)

가. 조사 개요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자기기입식 조사
- 조사 규모 : 16명
- 조사 기간 : 2018년 4월 20일(금) ~ 4월 27일(금)
- 표본 추출 : 16개 광역문화재단별 지원사업 운영 담당자
- 조사 항목 : 14개 항목 (서술형)

[표Ⅲ-8] 부문별 재단 담당자 조사 항목

구 분	설문 항목
심의제도에 관한 인식	문1. 귀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심의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문2. 귀 재단에서는 이루어지는 심의제도와 관련하여 예술위의 문예진흥기금 심의제도를 모델로 구성된 제도적 요소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3. 귀 재단에서는 심의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심의위원 후보군 구성 관련	문4. 귀 재단에서는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주세요. 문5. 귀 재단에서는 심의위원 선정을 위한 후보군 풀을 별도로 모집하거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후보군을 모집하고 전문성을 검증합니까? 문6. 심의위원 풀을 구성하는 후보자의 영역 비율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ex. 예술가, 평론가, 행정가, 기획자 등) 문7. 심의위원 후보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ex. 자질, 평판, 현장경험 등)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문8. 심의위원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합니까? 문9.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는 별도로 심의와 관련된 자문위원 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합니까?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문10. 심의진행은 공개되어 있습니까? 공개되어 있다면 누구에게까지 공개되어 있습니까? (참관인, 지원예술가, 일반시민 등), 공개범위에 따른 효과가 있습니까? 문11. 심의진행시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주세요.
심의 이후 피드백	문12. 심의 이후 사후 모니터링 및 컨설팅,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지원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절차인지 설명해주세요 문13. 전년도 사업 평가를 차년도 심의에 반영합니까? 반영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심의제도 내에서 반영됩니까?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14. 현재 귀 재단의 심의제도를 운영하면서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위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사 참여자 : 총 16명

[표Ⅲ-9] 광역문화재단 지원사업 담당자 리스트

	재단명	소속	이름
1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팀	이○○
2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팀	변○○
3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팀	김○○
4	충북문화재단	문화사업팀	심○○
5	충남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정○○
6	세종시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팀	송○○
7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임○○
8	전북문화관광재단	문예진흥팀	이○○
9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팀	강○○
10	전남문화예술재단	문화사업팀	서○○
11	제주문화재단	예술창작팀	강○○
12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문화사업부	유○○
13	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팀	정○○
14	울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팀	심○○
15	대구문화재단	예술진흥팀	박○○
16	강원문화재단	문예사업팀	오○○

[표Ⅲ-10] 광역문화재단별 심의특징 및 문제점

재단명	심의 특징	문제점	재단 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서울 문화 재단	심의위원후보 공개추천제 도입 - 2017년부터 추진 - 타인추천 원칙	-	다양한 심의방식의 검토 및 단계적 도입의 필요 - 공개심의, 실연심의, 당사자 참여 심의 등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심의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도입에 대한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등 검토 후 단계적 도입이 필요함
인천 문화 재단	심의과정 일부 공개 - 일부 인터뷰심의시 공개	심의위원 무작위추첨에 대한 전문성, 실효성 검증에서의 어려움 - 심의위원 무작위 추첨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전문성 담보하기 어려우며 행정 과정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공개심의방식의 긍정적 효과성 평가되어 점차 확대 예정 - 공개심의제도는 심의과정의 환류에 심의 공정성, 투명성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도입분야 확대해 나갈 예정임
경기 문화 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 제도를 기준으로 경기문화 재단의 심의제도를 변화 발전	심의제도 운영에 책정된 예산의 한계로 인한 문제 - 심의거머비 등이 충분히 책정되어 있지 않아 타 지역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의 전문성을 높이기엔 한계가 있음	심의료에 대한 충분한 책정 필요 - 심의위원의 심의 몰입과 심도깊은 심의를 유도하기위해 심의로 적절한 수준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타지역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는 예산 책정이 필요함 탈락사유 설명 명확화 - 미선정단체들의 탈락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이의제기시 담당자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 - 심의 총평 작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심의 탈락자들의 결과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충북 문화 재단	일부사업에 한하여 2018년부터 심의과정 공개	심의위원 구성의 형평성 문제 - 무작위 추출에 의한 심의 위원구성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지원신청자에 의한 무작위 심의위원 추천 제안 - 지원신청자가 심의위원 구성에 관하여 무작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위원 구성에서의 공정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충남 문화 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책임심의위원회제 참고하여 문화재단 심의제도 구성시 보완	한정된 심의위원 풀로 인한 문제 - 지역 내 한정된 인력풀로 인해 심의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음	심의위원 후보군 풀 공유 필요 - 다른 지역과의 심의위원 풀 공유를 통해 다양한 심의위원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세 중 시	심의평을 정리하여 제공함 - 이의제기시 희망자에	심의위원 구성의 어려움 - 한정된 심의위원 후보군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 방안 필요 - 평가 이후 심의위원과 심의결과에 대한

재단명	심의 특징	문제점	재단 심의회도 개선에 관한 의견
문화재단	제공	내에서도 섭외가 쉽지 않아 재단이 원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려움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심의 결과 및 컨설팅에 대한 환류의 중요성 증대 필요 - 미선정시 결과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심의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조율이 어려움.
대전 문화재단	심의위원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타 재단 심의위원 풀 공유 및 활용	-	지역 내 신규단체 진입을 위한 노력 필요 - 지역 내 신규단체가 보다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안식년제 도입 등과 같은 방식을 통해 변화를 유도
전북 문화관광재단	심의위원 후보군 검증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계 예정	-	체계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명확한 심의 지침 전달 필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 세부지침이 명확해진다면 각 재단에서 지침을 통해 심의 프로세스가 더 선명해질 것 기대
광주 문화재단	이의제기 상시 응대 창작지원컨설팅 연중 진행 (홈페이지 신청, 면담, 전화인터뷰) 심의위원 선정단 운영	심의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문제 - 심의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지원자들의 심의결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더욱 정밀한 정량, 정 성적 선정기준 보완 필요 -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부적인 정량 및 정성적 심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남 문화예술재단	책임평가위원회 운영 -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심사위원 전원합의방식 채택 공개심의 도입 - 점진적 확대 예정 인터뷰심의과정 공개 - 심의대상단체가 진행 과정 모니터링	-	심의위원 전원 합의 결정방식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 필요 - 전원 합의방식에 따른 장점 및 단점이 지속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
제주 문화재단	심의위원 채점카드 작성 심사 토론 후 합의제에 의한 지원 사업자 및 지원금 결정요청시 심사내용 및 자료 공개	충분한 심의위원 후보군 풀 마련의 어려움 - 2018년부터 심의위원 풀 운영 계획안이 마련되어 현재 충분한 심의위원 풀이 확보되지 않음	심의위원 후보군 검증을 위한 공통 원칙 마련 및 공유 필요 - 공통된 기준을 통한 심사위원 검증 체계를 운영하여 타문화재단과의 검증된 심사위원 후보군 자료 공유 필요
경남 문화예술진흥원	지역문화예술단체 간담회 진행 - 연 2회 (상하반기) 별도 자문, 의견 청취 심의 참관인제 시행 중	-	상하반기 지역문화예술단체 간담회 진행을 통해 의견청취 강화 - 지역예술단체와의 주기적인 교류, 간담회를 통해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 필요

재단명	심의 특징	문제점	재단 심의회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 시 관내 시민 누구나 참관 가능 전문위원 및 시민위원을 통한 현장평가 모니터링 시행 		
부산 문화 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심의위원 1/3 비율 필수 구성 내부회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심의위원회 최종 구성 - 영역별 전문성 고려 분야별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 인터뷰 심의 시 공개 사업별 전문가 컨설팅 1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별 심의위원 풀 구성의 한계 -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한 심의위원을 지역 내에서 구성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위원 후보군 풀 추가 필요 - 분야별 다양한 심의위원 후보군을 구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함
울산 문화 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문화예술기관, 대학, 유관기관을 통해 심의위원 추천 요청 컨설팅 진행 - 선정단체 및 탈락단체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심의위원 후보군 풀 부족 - 지역 내 심의위원 구성 시 후보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위원 후보군 풀 지속 확대 필요 - 심의위원회 구성 시 관외 심의위원 비율 확대 및 연중 지속적인 심의위원 후보군 모집이 필요함
대구 문화 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위원 공개추천 실시 전문가자문 / 라운드테이블 추진 - 익년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업개선 및 의견수렴 심사참관인제 시행 - 심의 진행시 사업별 참관인 1명, 보조연구원 1명이 함께 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위원의 지역 이해도 - 서류심사로만 대부분 심의가 진행되는 소액 다건사업의 경우 심의위원의 지역이해도가 낮을시 운영 어려움이 있음 심의위원의 심의시간 확보 문제 - 일부 심사의 경우 주어진 분량이 많아 심사시간이 부족하여, 촉박한 심사로 인한 질적인 부분의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위원 개인의 심의분량과 시간의 탄력적 운영 필요 - 사업 분야 및 심사랑에 따라 심의시간 탄력 운영방안이 필요 지역 이해도를 갖춘 심의위원 후보군 확보 필요 -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일정부분 지역 심의위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강원 문화 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형 심의위원 추천 영역별 무작위 추첨 사후 사업포기 신청기간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 사업결과 평가를 통한 차년도 심의 반영 유지 - 사업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결과 환류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5. 국내사례 시사점

□ 독립적 심의 운영조직의 필요성 대두

- 영화진흥위원회는 노하우가 많은 직원들에게 지원심의 업무를 부여하는 방식이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각 부서별로 지원심의회에 대한 역할 분담을 통해 추진하고, 한국연구재단은 심의를 위한 독립적 부서 운영을 실시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재 문학지원부에서 ‘보조사업 총괄업무’를 담당하며 타기관의 독립부서에 비해서도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함이 지적된 바 있음.
- 장르별 부서, 심의전담 조직구성 등 총괄업무 내 어떤 부분을 독립하고 병행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됨.

□ 심의위원 후보군의 전문적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사례의 경우 후보군 구성시 크게 본인 직접 신청과 단체 추천 신청이 주로 이루어지며, 심의위원 역량 및 경력에 대한 검증은 부서별 확인 혹은 선정위원회를 통한 확인 절차를 거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재까지 본인추천, 단체추천을 시기에 따라 병행하여 왔으나, 등록 전 정밀한 자격 검증과정이나 후보자군의 정기적 정보 업데이트가 미흡했음.
- 따라서 사업부서별 검증, 예술소위원회 검증 등과 같은 절차를 통해 다각적인 검증단계의 보완이 필요해보임.
- 이를 위해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메타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심의위원들을 평가,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기록하여 차후 심의의원 선정시 반영하는 평가 방안을 제안함.

□ 질 높은 심의위원 후보군 확보 필요

- 조사된 사례기관의 경우 확보한 후보군 안에서 대부분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선정하는 경우를 접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추출방식은 먼저 후보군의 정확한 검증 및 세부분야 정리 등이 선행되었을 때 가능한 것임.

- 광역재단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심의위원 후보군 구성시 전문성 검증에 대한 문제점 및 중요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위해 사업부서와 풀 추출 부서의 분리가 필요함.

제 2절 해외사례

1.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Arts Council England)⁴⁾

가. 단체 개요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전신은 대영제국 예술위원회로 1946년 설립되었음. 이후 1994-95년에 걸쳐 지방분권화에 따라 예술지원 전담기구가 4개의 지역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으로 분화되었으며, 이후 각각의 지역별로 예술지원전담기구로서 기능해왔음.
- 미션 : 모두를 위한 위대한 예술
- 비전 : 세계를 선도하는 창조적, 문화적 국가 잉글랜드
(England as a world-leading creative and cultural nation)
- 목표 : 1. 수월성(Excellence)
2. 향유(For everyone)
3. 탄성과 지속가능성(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4. 다양성과 전문성(Diversity and Skills)
5. 어린이와 청년(Children and Young people)

나. 지원제도 현황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 사업영역은 크게 예술분야, 박물관분야, 도서관분야로 나눌 수 있음. 예술분야는 ACE가 전통적으로 지원해온 6개 예술장르인 문학, 미술, 연극, 무용, 음악, 융합예술을 중심으로 하며, 박물관 및 도서관 분야에 대한 지원은 2011년 연합정부 출범 이후 편제됨.

4) 잉글랜드예술위원회 <http://www.artscouncil.org.uk>

[표Ⅲ-11] ACE 예술지원사업 사업영역 및 구조(2013/2014년 기준)
(단위 : 1백만 ₩)

구분	사업비 규모	비중(%)
국가포트폴리오 기관 지원사업	311.2	46.33
전략적 펀딩 지원사업	118.9	17.72
예술보조금 지원사업	69.9	10.42
뮤직에듀케이션 사업	63.2	9.42
문화교육 지원사업	5.3	0.79
박물관 지원	43	6.41
도서관 지원	3	0.45
행정지원 비용	33	4.92
기타	23.5	3.50
총 지출규모	671	100.00

다. 심의 현황

1) 심의 운영조직

- 독립적 심의전담조직이 없고 지원신청서 내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함.
- 모든 직원은 채용시 지원금 결정에 있어 본인과 관련된 어떤 분야, 기관, 지인에 게 특별히 유리한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 및 약정서를 작성함.

2)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별도의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지 않으며, 중앙 예술위원회는 총 15명으로 문화 미디어스포츠부가 임명함. 9개의 지역위원회는 대표이사1명, 이사 6명으로 구성되어 전문 스태프들을 이끌어남.
- 지원심의회에 대한 최종결정은 지원비용에 따라 큰 지원비용은 예술위원회의 국가위원회에서 하고, 그 이하는 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함.
- 심의과정에 외부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지만 기본적으로 결정권은 예술위원회의 위원회와 사무국에 있음.

라. 심의 특징

- 개인과 프로젝트 이외의 단체 지원은 3년 단위로 지정함.
- 상시 지원신청을 받기 때문에 심의를 위한 전담조직을 두지않고, 지원신청시 내부직원들이 자체평가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함.

□ 예술단체의 자체적 평가를 위한 도구의 개발

- 예술위원회에서 ‘자체평가 프레임웍’ 을 개발하여 예술단체들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고하기 위함.
- 권위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견고한 분석을 위한 도구로서 받아들여야함.
- 예술위원회가 제시한 프레임웍은 6가지 영역에 초점을 둠.
 - 비전 / 외부적 환경 / 예술적 열망과 운영프로그램 / 참여 / 제능과 역량 / 사업관리

□ 정기지원을 위한 명확한 기준의 명시

- 기준에 관련한 사항
 - 프로그램의 우수성 및 혁신 / 범위 / 참여 / 재정적 지속가능성, 거버넌스와 경영관리
- 전반적 예술기반의 판단사항
 - 다양성, 예술형식의 범위와 역할, 규모와 형태, 지역적 분산

2. 일본예술문화진흥회⁵⁾

가. 단체 개요

- 일본은 문화청 산하에 독립행정법인 일본예술문화진흥회를 설치하고 예술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기금은 정부 출자금 541억엔과 민간의 출연금 132억엔 등 총 673억엔의 운영이익으로 조성 활동을 하고 있음.
- 독립행정법인 일본예술문화진흥회에서는 예술문화진흥기금의 운용 이익에 관한 조성사업과 국가 보조금(문화예술진흥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나. 지원제도 현황

□ 예술문화진흥기금 조성사업 (기금운용이익에 관한 사업)

-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예술창작·보급 활동, 지역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문화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문화진흥, 보급 활동

- (1)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예술 창작·보급 활동
- ① 오케스트라, 오페라, 실내악, 합창, 발레, 현대 무용, 연극 등 무대 예술 공연 활동
 - ② 인형극, 가부키(歌舞伎), 가면 음악극(能樂), 일본 음악(邦樂), 일본 무용(邦舞) 등 전통예술의 공개활동
 - ③ 만담, 설화, 미술 등 대중예술의 공연 활동
 - ④ 미술 전시활동
 - ⑤ 국내 영화제 등의 활동
 - ⑥ 특정 예술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공연·전시 활동
- (2)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한 활동
- ① 문화회관, 미술관 등 지역의 문화 시설에서 실시하는 공연, 전시, 기타 활동
 - ② 역사적인 마을·거리, 문화적 경관 세미나, 자료 수집·작성, 보급 계발에 의한 보존·활용 활동
 - ③ 민속 문화재의 공개, 광역단위 교류, 부활·복원에 의한 전승, 기록 작성에 의한 보존 활용 등의 활동

5) 일본예술문화진흥회 <http://www.ntj.jac.go.jp>

- (3) 문화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문화 진흥, 보급 활동
 - ① 아마추어 등의 문화 단체가 실시하는 공연, 전시, 기타 문화 활동
 - ② 전통 공예 기술, 문화재 보존 기술의 보존 전승, 공개 활용, 기록 작성에 의한 보존 활용 활동, 쇠퇴한 전통 공예기술의 복원 활동

□ 문화예술진흥보조금 조성사업 (국가(문화청)보조금 재원 조성 사업)

－ 공연예술 창조활동 활성화 사업, 영화제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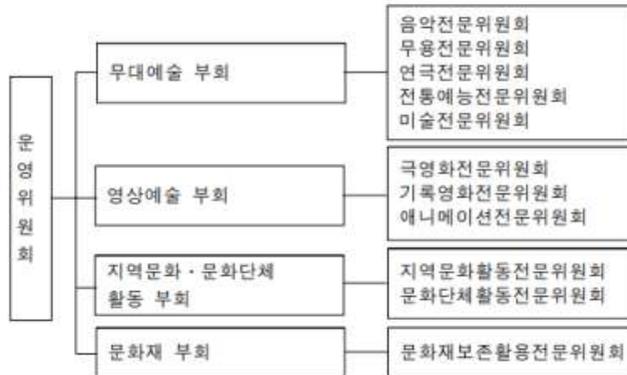
- (1) 공연예술 창조활동 활성화 사업
 - ① 우리나라의 예술 단체의 수준 향상 및 더 많은 국민에게 감상 기회의 제공을 도모하는 뛰어난 무대 예술 창작 활동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대중예술)
- (2) 영화 제작에 지원
 - ① 뛰어난 일본 영화의 제작 활동 (극영화, 기록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다. 심의 현황

1) 심의 운영조직

- － 일본예술문화진흥회에서는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예술문화진흥 기금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를 진행함.
- － 분야별 4개 부회와 13개의 전문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분야의 실정 및 특성에 따른 심사 체제를 갖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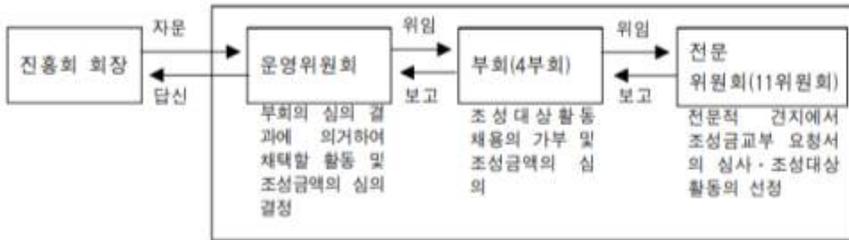
[그림Ⅲ-1] 일본문화예술진흥회 운영위원회 조직



2)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장르에 따라 심의가 필요한 부회를 회부하고 부회는 또다시 아래 13개 전문위원회에 관련 심의를 회부함.

[그림 III-2] 일본문화예술진흥회 심의위원회 운영구조



라. 심의 특징

- 독립적으로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며 심의분야(장르)별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음.
- 예술문화진흥기금 운영위원회는 4개 분야의 부회와 13개 전문회를 두어 각 분야별 특성에 따라 선정절차를 진행함.

3. 국립예술기금(NE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⁶⁾

가. 단체 개요

- 미국 국립예술기금은 1965년 미국 국회 의회에 의해 설립된 독립연방기관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예술작품을 제작하거나 보존하는데 도움을 주는 ‘우수 예술작품 지원사업(Art Works)’, 소외계층과 지역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 ‘챌린지 아메리카(Challenge America)’, 시민의 예술참여를 위한 공간 조성지원 프로젝트 ‘아워타운(Our Town)’ 등이 있음.
- 미션 : 공동체의 창의적인 능력 강화를 위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모든 미국인에게 제공
- 비전 : 개인이 문화를 향유하고 공동체가 예술을 통해 열망과 성취를 이루어 내는 국가
- 목표 : 1. 수준 높은 예술 창달을 위한 지원.
2. 다양하고 훌륭한 예술에 대한 공공의 향유.
3. 예술 기여에 대한 공공의 지식과 이해 증진.
- 국가예술기금 : 14억 9,849,000달러 (2017년 기준)

나. 심의 현황

1) 심의 기준 및 절차

□ 심의 기준

- 예술적 우수성(artistic excellence), 예술적 기여도(artistic merit) 등 2가지 평가지표를 가중치 각 50%로 각 10점 만점으로 평가함.
- 예술적 우수성(artistic excellence) : 예술가 · 예술단체 · 작품 · 서비스의 수

6) 미국연방예술기금 <http://www.nea.gov>

준의 적절성, 사업의 예술적 중요성 등을 평가함.

- 예술적 기여도 : 국가의 예술적·문화적 유산의 기여도, 예술의 접근성 제고, 관객의 확대·다양화 가능성, 예술을 통한 커뮤니티 강화 가능성, 사업수행단체의 미션과 전반적인 목표관객, 목표수혜자에 대한 적정 기여도, 사업수행능력, 소요예산 산출 적정성, 성과달성가능성 및 성과측정의 수행가능성 등을 평가함.

□ 심의 절차

- 1차 심의 : 1단계(지원신청서와 작품샘플·참고자료에 대한 검토)
 - 2단계 (신청사업에 대한 토론 및 심의)
 - 3단계 (신청사업에 대한 채점) 등의 순서로 진행
- 2차 심의 : 채점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의 커트라인을 정하고, 최종 순위 확인 및 지원금 배정 원칙을 포함해서 국가예술평의회에 지원대상으로 추천할 사업에 대해 최종 확정함.
- 최종결정(국가예술위원회:NCA) : NEA에서는 이러한 지원심의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검토서를 작성하여 NCA에서 최종적인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함.

2) 심의 운영조직

□ 자문기능 수행으로서의 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위원회는 결정기구가 아닌 자문위원회로서 NEA원장이 의장인 국가예술위원회(NCA)에 지원대상사업을 심의하여 추천하는 것을 그 주된 역할로 하되, 예술현장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변경, 가이드라인의 수정 등 사업개선에 대한 각종 자문기능을 수행함.
- 최종적인 심의결과와 구체적인 지원금액의 결정은 실제로 NEA에서 수행함.

3)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 구성시 일반국민의 참여

- 심의위원은 다양한 예술적 그리고 문화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을 구성하되 지역, 인종, 성별 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함.
- 심의위원회는 5-11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예술가 외에 직업으로 예술단체 활동

- (이사 등)이나 창작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술적 소양과 지식이 풍부한 일반국민(layperson)을 1인 이상 포함시켜 구성함.
- 심의위원은 명예직으로서 실비 보상성격의 보상위주로 이루어지며, 1년에 1개, 최대 3년 연임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다. 심의 특징

□ 유럽과 구별되는 소극적 지원방식 적용

- NEA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소극적인 지원방식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이 자생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지원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매칭 펀드를 통해 일부만 지원함.
- NEA의 지원체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임프리머터(imprimatur) 라는 것으로, 이는 한 예술단체에 대한 NEA로부터의 지원이 이 단체의 예술의 질적 수준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인 증은 다시 이 단체가 다른 민간 재단, 기업, 개인으로부터 후원받는 것을 용이하게 해줌.

4. 해외사례 시사점

- 자체적 심의결정 주도권을 통해 기관의 책임성, 투명성의 강화
 - 영국의 잉글랜드예술위원회는 주로 정기지원단체(RFO) 중심의 지원과 함께 수시지원제도(GFA)를 보조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형태임.
 - 수시지원단체의 심의를 결정하기 위해서 부서 내 담당자들이 자체적인 심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지원단체별 선정결과를 결정함.
 - 이러한 결정과정은 잉글랜드예술위원회가 예술단체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보임.
 - 미국과 영국 모두 예술정책의 지향에 따라 기본적인 가치지향에 대한 합의, 세부적인 지원심의기준과 절차 등이 확립되어 있어 신뢰를 얻고 있으며, 모두 최종적인 결정은 지원심의위원회가 아닌 예술지원기관 차원에서 책임을 가지고 결정하고 있음.
 - 그에 반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대한 책임과 판단을 대부분 심의위원 개개인에게 부여함.
- 독립적 심의 전담기구 운영을 통한 심의 전문성 확보
 - 일본의 일본예술문화진흥회는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심의분야에 따라 세분화된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음.
 - 심의분야(장르)별 평가구조를 통해 더욱 정밀하고 다각적인 평가방식이 고려될 수 있음.



제4장

의견수렴 결과

제1절 : 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제2절 : 심의위원 FGI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제3절 : 내부관계자 FGI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제4절 : 전문가 자문회의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제5절 : 소결

제1절 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자기기입식 조사
- 조사 규모 : 471명
- 조사 기간 : 2018년 1월 17일(수) ~ 1월 30일(화)
- 표본 추출 : 2017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지원한 단체 관계자 및 지원자
- 표본 오차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하에서 $\pm 4.52\%p$
- 조사 항목

[표Ⅳ-1] 조사 항목

구 분	설문 항목
심의제도에 관한 인식	지원심의제도 인지도, 지원심의제도 사전안내 충분성, 지원심의제도 기여도, 지원심의제도 운영 적절성 등
제도의 중요도 및 만족도	심의절차 공모 및 지원 단계, 심의위원 풀 구성, 심의위원회 구성 방법, 심의과정, 심의종료 후 절차 등
문제점	현 심의제도에 관한 문제점,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등
향후 개선 방안	공모단계 중 개선요구사항, 심의위원회 확충 영역, 심의위원회 구성 방법, 심의제도 개선요구사항, 심의제도 운영 개선 아이디어 등

- 분석 방법 : 빈도 분석, 교차 분석

2. 조사 결과

가. 응답자 특성

[표Ⅳ-2] 응답자 특성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분야	문학	47	10.0%
	시각예술	63	13.4%
	연극, 뮤지컬	124	26.3%
	무용	35	7.4%
	음악	81	17.2%
	전통예술	77	16.3%
	문화복지 및 일반	21	4.5%
	기타	23	4.9%
지원 신청 경험	1회~2회	174	37.0%
	3회 이상	297	63.1%

□ 분야

- 약 8개 분야(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문화복지 및 일반)에 걸쳐 응답이 이루어졌으며, 연극·뮤지컬 분야의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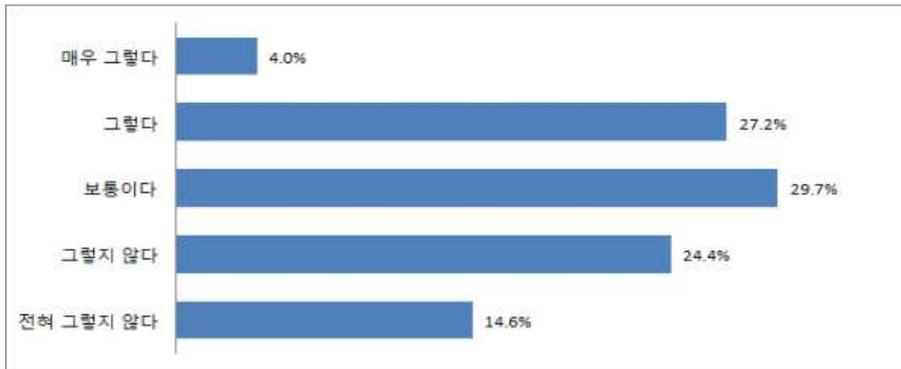
□ 지원 경험

- 1~2회 지원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74명으로 약 37%로 나타남.
- 3회 이상 지원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97명으로 약 63.1%로 나타남.

나. 심의제도에 관한 인식

1) 지원심의제도 인지도

- 2017년도부터 새로 바뀐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7%로 가장 높았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7.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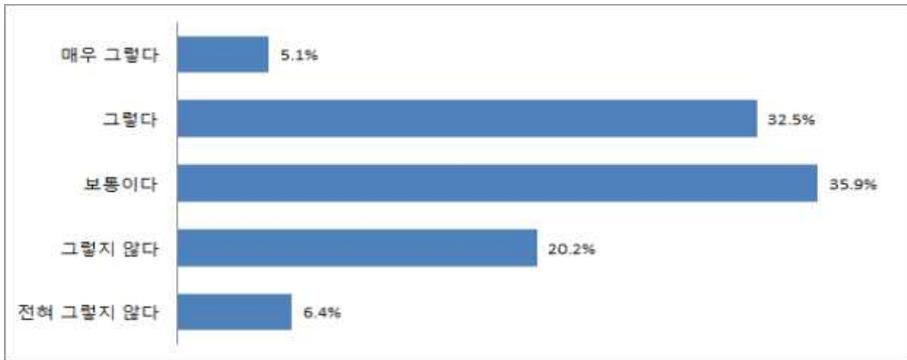
[표IV-3] 지원심의제도 인지도

(질문 : 귀하께서는 2017년도부터 새로 바뀐 현행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제도(심의위원 풀제, 심의위원 구성방식 등)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구분	응답자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471	14.6%	24.4%	29.7%	27.2%	4.0%	
분야	문학	47	27.7%	23.4%	25.5%	23.4%	0.0%
	시각예술	63	11.1%	39.7%	28.6%	20.6%	0.0%
	연극뮤지컬	124	13.7%	21.8%	29.0%	32.3%	3.2%
	무용	35	17.1%	28.6%	34.3%	14.3%	5.7%
	음악	81	13.6%	21.0%	28.4%	30.9%	6.2%
	전통예술	77	10.4%	20.8%	33.8%	27.3%	7.8%
	문화복지 및 일반	21	4.8%	14.3%	28.6%	47.6%	4.8%
	기타	23	26.1%	26.1%	30.4%	13.0%	4.3%
지원 경험	1회~2회	174	16.7%	24.1%	29.3%	28.7%	1.1%
	3회 이상	297	13.5%	24.6%	30.0%	26.3%	5.7%

2) 지원심의제도 이해도

- 공고문을 통해 심의제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이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5.9%로 가장 높았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2.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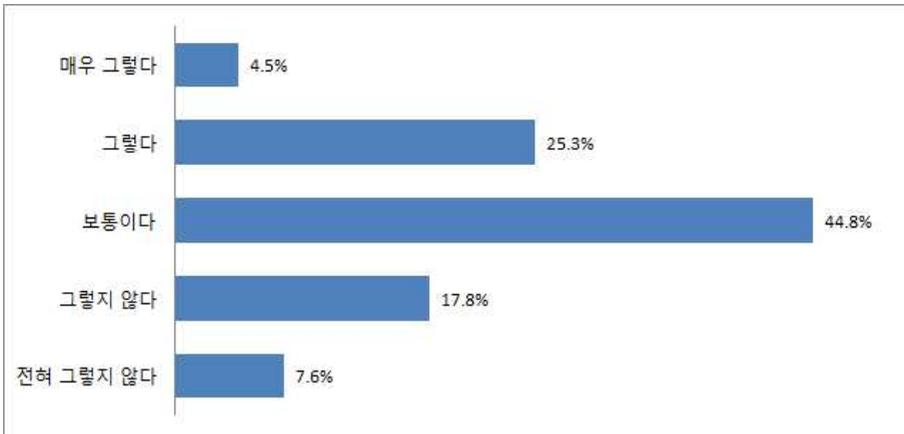
[표IV-4] 지원심의제도 이해도

(질문 : 귀하께서는 지원심의제도의 심의기준, 심의절차 등에 대해 공고문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か?)

구분	응답자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471	6.4%	20.2%	35.9%	32.5%	5.1%	
분야	문학	47	14.9%	21.3%	40.4%	23.4%	0.0%
	시각예술	63	1.6%	20.6%	44.4%	31.7%	1.6%
	연극뮤지컬	124	8.1%	21.0%	34.7%	34.7%	1.6%
	무용	35	2.9%	28.6%	40.0%	22.9%	5.7%
	음악	81	6.2%	17.3%	29.6%	37.0%	9.9%
	전통예술	77	5.2%	14.3%	33.8%	36.4%	10.4%
	문화복지 및 일반	21	0.0%	14.3%	33.3%	42.9%	9.5%
	기타	23	8.7%	34.8%	34.8%	17.4%	4.3%
지원 경험	1회~2회	174	7.5%	19.5%	38.5%	31.6%	2.9%
	3회 이상	297	5.7%	20.5%	34.3%	33.0%	6.4%

3) 심의절차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기여도

- 현행 문예진흥기금 심의제도가 전반적으로 심의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5.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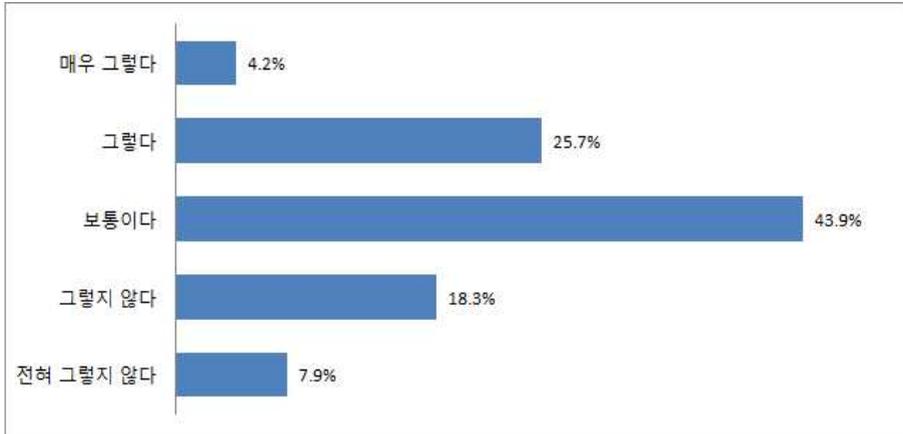
[표Ⅳ-5] 심의절차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기여도

(질문 : 귀하께서는 2017년도부터 새로 바뀐 현행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제도가 전체적으로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응답자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471	7.6%	17.8%	44.8%	25.3%	4.5%	
분야	문학	47	10.6%	21.3%	40.4%	27.7%	0.0%
	시각예술	63	6.3%	14.3%	54.0%	20.6%	4.8%
	연극뮤지컬	124	8.9%	21.8%	44.4%	21.8%	3.2%
	무용	35	8.6%	25.7%	48.6%	14.3%	2.9%
	음악	81	4.9%	13.6%	42.0%	33.3%	6.2%
	전통예술	77	9.1%	14.3%	42.9%	26.0%	7.8%
	문화복지 및 일반	21	0.0%	4.8%	52.4%	33.3%	9.5%
	기타	23	8.7%	26.1%	34.8%	30.4%	0.0%
지원 경험	1회~2회	174	5.7%	14.4%	47.1%	29.9%	2.9%
	3회 이상	297	8.8%	19.9%	43.4%	22.6%	5.4%

4)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심사결과에 대한 책임성 제고 기여도

- 현행 문예진흥기금 심의제도가 전체적으로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심사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5.7%로 나타남.



[표Ⅳ-6]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심사결과에 대한 책임성 제고 기여도

(질문 : 귀하께서는 2017년도부터 새로 바뀐 현행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제도가 전체적으로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심사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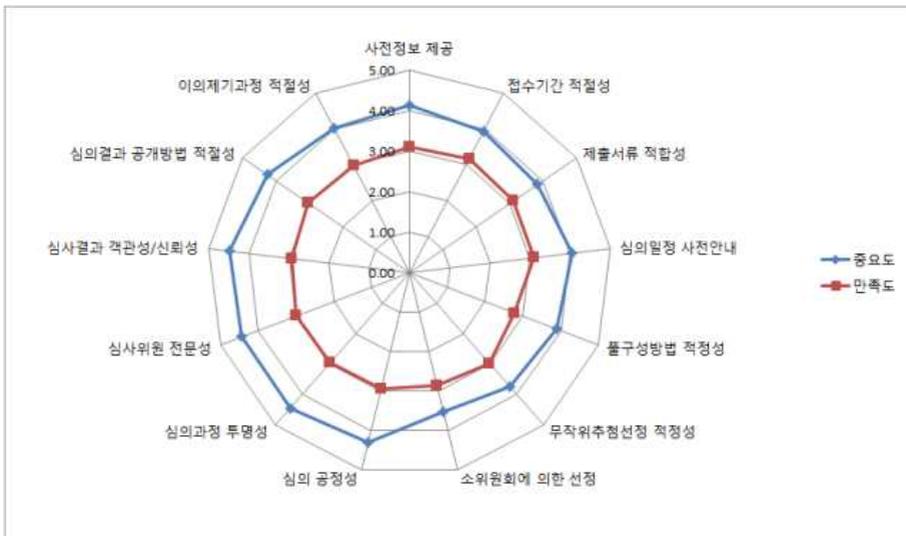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471	7.9%	18.3%	43.9%	25.7%	4.2%	
분야	문학	47	12.8%	21.3%	44.7%	21.3%	0.0%
	시각예술	63	6.3%	11.1%	55.6%	22.2%	4.8%
	연극뮤지컬	124	9.7%	22.6%	42.7%	22.6%	2.4%
	무용	35	8.6%	17.1%	57.1%	17.1%	0.0%
	음악	81	6.2%	18.5%	32.1%	35.8%	7.4%
	전통예술	77	6.5%	14.3%	40.3%	31.2%	7.8%
	문화복지 및 일반	21	0.0%	4.8%	57.1%	28.6%	9.5%
	기타	23	8.7%	34.8%	39.1%	17.4%	0.0%
지원 경험	1회~2회	174	5.2%	13.2%	48.3%	29.3%	4.0%
	3회 이상	297	9.4%	21.2%	41.4%	23.6%	4.4%

다. 제도의 중요도 및 만족도

□ IPA 분석 결과

-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크론바 알파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중요도와 만족도 비교 분석을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함.

[그림Ⅳ-1] IPA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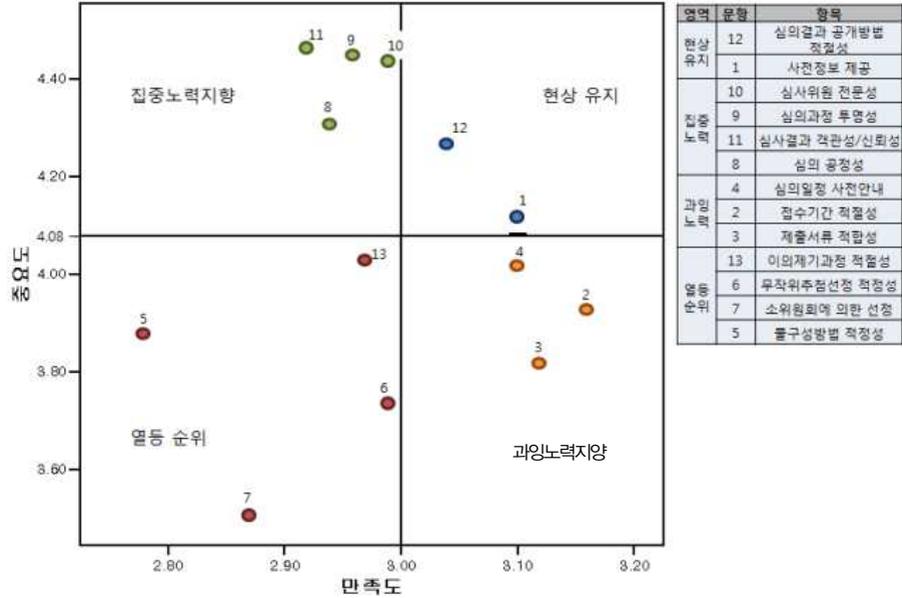
[표Ⅳ-7] 중요도-만족도 비교 분석 결과

구분		중요도	만족도	대응차	t값	유의확률
공모 및 지원	1 사전정보 제공	4.12	3.10	1.02	18.91	0.00
	2 접수기간 적절성	3.93	3.16	0.76	13.45	0.00
	3 제출서류 적합성	3.82	3.12	0.70	14.53	0.00
	4 심의일정 사전안내	4.03	3.10	0.93	16.79	0.00
심의 위원 풀 구성	5 풀구성방법 적정성	3.88	2.78	1.10	17.37	0.00
심의 위원회 구성 방법	6 무작위추첨선정 적정성	3.74	2.99	0.75	13.81	0.00
	7 소위원회에 의한 선정	3.51	2.87	0.64	12.63	0.00
	8 심의 공정성	4.31	2.94	1.37	21.23	0.00

		구분	중요도	만족도	대응차	t값	유의확률
심의 과정	9	심의과정 투명성	4.45	2.96	1.49	23.34	0.00
	10	심사위원 전문성	4.44	2.99	1.45	24.71	0.00
	11	심의결과 객관성/신뢰성	4.47	2.92	1.55	24.74	0.00
	12	심의결과 공개방법 적절성	4.27	3.04	1.22	19.25	0.00
심의 종료 후 절차	13	이의제기과정 적절성	4.03	2.97	1.06	17.53	0.00

- 이를 집중노력지향, 현상유지, 과잉노력지향, 열등순위 총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 분포를 파악함.
- 집중노력지향 영역은 중요도는 높으나 그에 반해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심의 공정성, 심의과정 투명성, 심사위원 전문성, 심의결과 객관성/신뢰성이 분포되어 보다 집중적인 향상이 필요한 항목으로 드러남.
- 현상유지 영역은 중요도도 높고 그에 따른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사전정보 제공, 심의결과 공개방법의 적절성이 분포되어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한 항목으로 드러남.
- 과잉노력지향 영역은 중요도는 낮는데 반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접수기간의 적절성, 제출서류 적합성, 심의일정 사전안내가 분포되어 과잉노력 투여현상의 방지가 필요한 항목으로 드러남.
- 열등순위 영역은 중요도도 낮고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풀구성 방법의 적절성, 무작위추첨선정 적절성, 소위원회에 의한 선정, 이의제기과정 적절성이 분포되었음.

[그림Ⅳ-2] 중요도-만족도 분포도



라. 심의제도 문제점

1) 현 심의제도에 대한 문제점

- 현 심의제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의 공정성이 4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심의과정의 투명성이 43.1%, 심의기준의 명확성이 40.6%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심의과정 및 심의기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심의과정 전반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표Ⅳ-8] 개선 사항

(질문 : 귀하께서 현 심의제도에 관해 각 단계별로 불만족스럽거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중요도에 따라 중복선택 가능))

구분	응답자 수	공모 모집기간 및 절차의 적절성	심의위원 풀을 활용한 심의위원 후보군 구성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 방법	심의위원의 전문성 및 심의 적합성	심의 기준의 명확성	심의 과정의 공정성	심의 과정의 투명성	심의 결과 공개 및 통보 방법	심의 결과 공개의 범위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의 적절성	
전체	471	22.3%	24.0%	31.0%	36.9%	40.6%	45.4%	43.1%	18.0%	27.4%	18.0%	
분야	문학	47	19.1%	34.0%	31.9%	31.9%	46.8%	48.9%	46.8%	14.9%	23.4%	14.9%
	시각 예술	63	28.6%	20.6%	31.7%	36.5%	41.3%	34.9%	28.6%	15.9%	25.4%	15.9%

구분	응답자 수	공모 모집기간 및 절차의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활용한 심의위원 후보군 구성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 방법	심의위원의 전문성 및 심의 적합성	심의 기준의 명확성	심의 과정의 공정성	심의 과정의 투명성	심의 결과 공개 및 통보 방법	심의 결과 공개의 범위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의 적정성	
연극 뮤지컬	연극	124	22.6%	23.4%	30.6%	39.5%	46.0%	50.8%	45.2%	20.2%	32.3%	23.4%
	뮤지컬	35	20.0%	25.7%	37.1%	57.1%	62.9%	54.3%	62.9%	20.0%	20.0%	14.3%
	음악	81	23.5%	21.0%	33.3%	38.3%	28.4%	44.4%	33.3%	13.6%	19.8%	13.6%
	전통 예술	77	16.9%	23.4%	16.9%	31.2%	32.5%	44.2%	49.4%	19.5%	31.2%	16.9%
	문화 복지 및 일반	21	28.6%	19.0%	28.6%	19.0%	28.6%	23.8%	33.3%	9.5%	23.8%	19.0%
	기타	23	21.7%	30.4%	60.9%	34.8%	43.5%	52.2%	56.5%	34.8%	43.5%	26.1%
지원 경험	1회~2회	174	713.2%	24.7%	21.3%	26.4%	29.9%	43.7%	44.3%	38.5%	16.7%	27.0%
	3회 이상	297	20.9%	25.6%	33.7%	41.1%	38.7%	46.1%	45.8%	18.9%	27.6%	20.2%

□ 문제점이라 생각하는 세부 사항

- 현 심의제도의 절차 및 과정 중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은 크게 10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IV-9] 불만족스럽거나 문제점이라고 응답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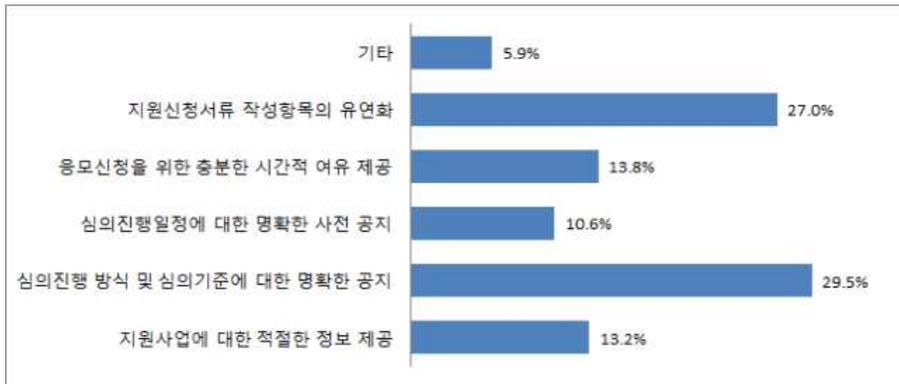
구분	내용
공모 및 신청단계	공고 모집기간이 짧아 준비에 어려움이 있음 차년도 공모에 관한 안내 사항은 그 전년도에 이루어져야 함 사업 취지나 목적을 모호한 경우가 있어 그에 따른 지원가능 대상이 불명확하게 제시되는 경우가 있음 다소 복잡한 행정 절차가 많아 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신청 서류 작성이 복잡하고 불필요한 부분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공모모집기간이 장르에 따라 유동적일 필요가 있음 실제 현장의 예산편성시기나 사업운영시기와 공모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음

구분		내용
심의회원 구성 및 운영	심의회원 풀을 활용한 심의회원 후보군 구성 방법	심의회원풀 구성이 편중되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심의회원풀이 보다 현장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함 협회나 단체 중심으로 심의회원 풀을 구성하는 것은 편향된 후보군이 선출될 우려가 있음 현장 예술가 중심의 심의회원 후보군이 구성되어야 함
	심의회원회 구성방법	현재의 무작위 추첨은 심의회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선정방 법임 무작위 추첨은 다소 편향된 심의회원이 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를 다양하게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장르별 심의회원 수가 균등해야 함 심의회원회 구성 시 지역안배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
	심의회원 전문성 및 심의 적합성	현장 중심의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심의회원을 선정해야 함 신청단체나 해당 사업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심의회원이 심의에 참여함 해당 심의회원 선정 이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함 대년간 동일 심의회원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심의회원 전문성을 판단할 근거와 기준이 모호함
심의기준	명확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지 않음 신규단체와 기존에 지원을 받던 단체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음 수치나 수량으로 평가되는 정량적 기준이 적절하지 않음
심의과정	공정성	매번 선정되는 단체나 유명 예술가가 속한 단체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음 신규단체나 신진예술가가 선정되기 어려운 구조 사업별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공정성에 얽매어 심의하는 경우가 있음
	투명성	현 지원심의시스템은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임 심의과정에 관한 설명 및 안내 부족 지원자가 심의과정을 확인할 수 없음
심의종료 후 절차	심의결과 공개 및 통보 방법	탈락한 단체나 예술가에게 선정되지 못한 사유나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알려주어야 함 심사평이나 결과근거를 다소 성의없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음 선정된 기준이나 탈락된 근거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어야 함
	심의결과 공개 범위	개별 지원자에 대한 심사평이 공개되었으면 함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의 적정성	심의 이후 이의제기 및 사후 피드백을 보다 구체적으로 시스템화 하는 것이 필요함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에 대한 사후 평가가 필요함 이의제기 이후 사후 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마. 향후 개선 방안

1) 공모단계 중 개선사항

- 지원심의제도 절차 중 공모 단계에서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심의진행 방식 및 심의기준에 대한 명확한 공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원신청서류 작성항목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7.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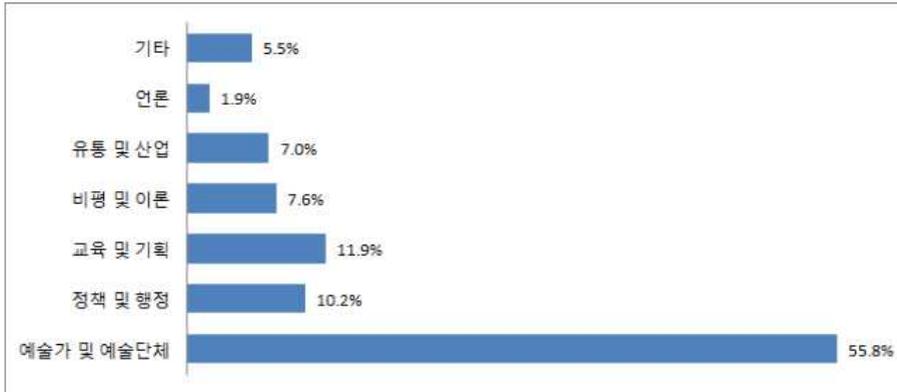
[표Ⅳ-10] 향후 개선 방안

(질문 : 귀하께서는 지원심의제도 공모 단계 중 개선해야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응답자 수	지원사업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심의진행 방식 및 심의기준에 대한 명확한 공지	심의진행 일정에 대한 명확한 사전공지	응모신청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제공	지원신청서류작성 항목의 유연화	기타	
전체	471	13.2%	29.5%	10.6%	13.8%	27.0%	5.9%	
분야	문학	47	14.9%	31.9%	4.3%	8.5%	36.2%	4.3%
	시각예술	63	19.0%	17.5%	14.3%	12.7%	27.0%	9.5%
	연극 뮤지컬	124	14.5%	33.1%	11.3%	16.1%	21.0%	4.0%
	무용	35	8.6%	40.0%	11.4%	8.6%	25.7%	5.7%
	음악	81	9.9%	25.9%	11.1%	22.2%	27.2%	3.7%
	전통예술	77	10.4%	26.0%	15.6%	14.3%	26.0%	7.8%
	문화복지 및 일반	21	14.3%	33.3%	0.0%	0.0%	33.3%	19.0%
	기타	23	13.0%	43.5%	0.0%	4.3%	39.1%	0.0%
지원 경험	1회~2회	174	17.2%	24.7%	9.2%	13.2%	29.3%	6.3%
	3회 이상	297	10.8%	32.3%	11.4%	14.1%	25.6%	5.7%

2) 향후 심의위원 인력풀 확충 영역

- 향후 심의위원 인력풀을 확충할 시 예술가 및 예술단체 관계자 중심으로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55.8%로 나타나 다른 영역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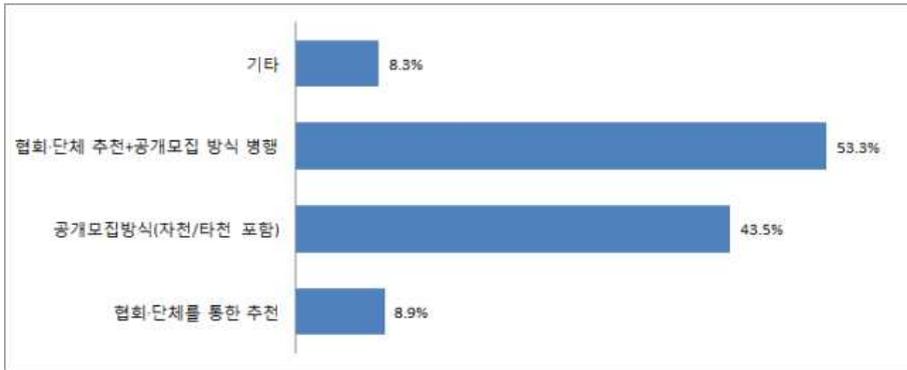
[표Ⅳ-11] 향후 심의위원 인력풀 확충 영역

(질문 : 귀하께서는 예술위원회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인력풀은 향후 어느 영역에서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응답자 수	예술가 및 예술단체	정책 및 행정	교육 및 기획	비평 및 이론	유통 및 산업	언론	
전체	471	55.8%	10.2%	11.9%	7.6%	7.0%	1.9%	
분야	문학	47	61.7%	4.3%	12.8%	12.8%	2.1%	2.1%
	시각예술	63	41.3%	9.5%	15.9%	17.5%	6.3%	1.6%
	연극 뮤지컬	124	55.6%	12.1%	9.7%	4.8%	10.5%	0.8%
	무용	35	40.0%	20.0%	2.9%	8.6%	14.3%	0.0%
	음악	81	67.9%	3.7%	13.6%	4.9%	4.9%	2.5%
	전통예술	77	67.5%	7.8%	16.9%	3.9%	1.3%	1.3%
	문화복지 및 일반	21	38.1%	23.8%	9.5%	4.8%	9.5%	9.5%
	기타	23	43.5%	17.4%	4.3%	8.7%	13.0%	4.3%
지원	1회~2회	174	52.3%	12.1%	14.9%	9.8%	6.3%	0.6%
경험	3회 이상	297	57.9%	9.1%	10.1%	6.4%	7.4%	2.7%

3) 심의위원 후보군(풀) 구성방법

- 심의위원 후보군(풀)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협회·단체 추천과 공개모집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 및 타인 추천을 포함하는 공개모집방식은 43.5%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심의위원 풀을 구성하는 방법은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보다 다양한 층위에서 풀이 구성되는 방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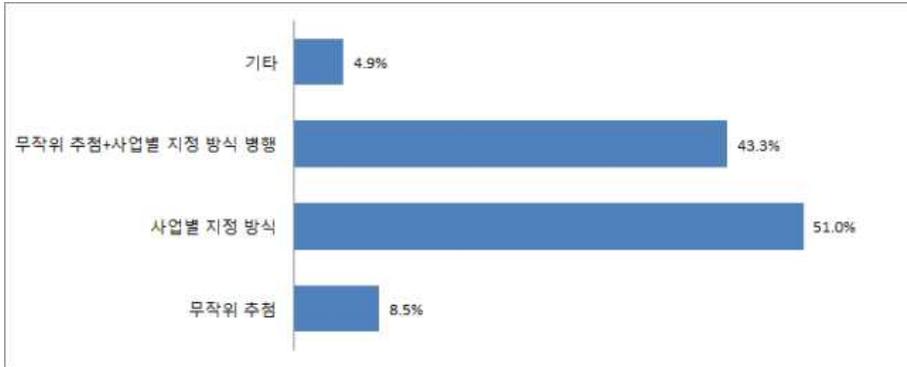
[표Ⅳ-12] 심의위원 후보군(풀) 구성방법

(질문 : 귀하께서는 향후 예술위원회 심의제도가 개선된다면, 심의위원 후보군(풀)을 구성하는 방식은 무엇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응답자 수	협회·단체를 통한 추천	공개모집 방식 (자천/타천)	협회·단체 추천 + 공개모집 방식 병행	기타	
전체	471	8.9%	43.5%	53.3%	8.3%	
분야	문학	47	17.0%	40.4%	53.2%	6.4%
	시각예술	63	7.9%	50.8%	46.0%	12.7%
	연극뮤지컬	124	11.3%	37.1%	54.0%	7.3%
	무용	35	2.9%	42.9%	51.4%	20.0%
	음악	81	9.9%	33.3%	63.0%	11.1%
	전통예술	77	7.8%	55.8%	46.8%	1.3%
	문화복지 및 일반	21	0.0%	42.9%	61.9%	0.0%
	기타	23	0.0%	60.9%	52.2%	8.7%
지원 경험	1회~2회	174	13.2%	43.7%	55.7%	4.6%
	3회 이상	297	6.4%	43.4%	51.9%	10.4%

4) 심의위원 위촉 방식

- 심사위원 풀 구성 이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사업별 지정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작위 추천과 사업별 지정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43.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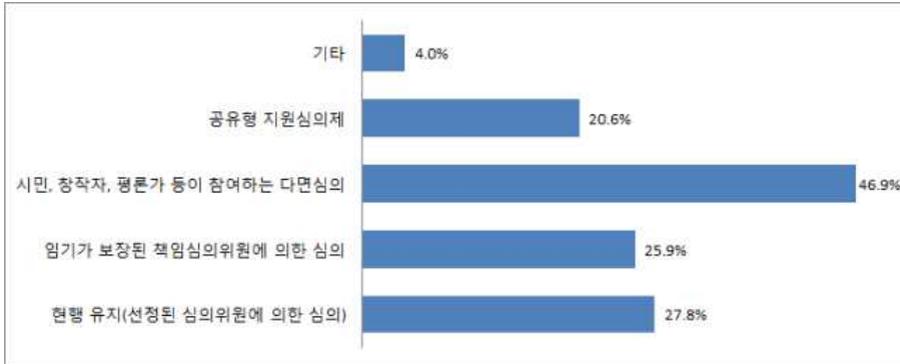
[표Ⅳ-13] 심의위원 위촉 방식

(질문 : 귀하께서는 향후 예술위원회 심의제도가 개선된다면, 심의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은 무엇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응답자 수	무작위 추천	사업별 지정방식	무작위추천 + 사업별 지정 양식 병행	기타	
전체	471	8.5%	51.0%	43.3%	4.9%	
분야	문학	47	14.9%	44.7%	42.6%	6.4%
	시각예술	63	3.2%	58.7%	42.9%	6.3%
	연극뮤지컬	124	11.3%	52.4%	40.3%	2.4%
	무용	35	5.7%	45.7%	40.0%	17.1%
	음악	81	7.4%	51.9%	46.9%	3.7%
	전통예술	77	9.1%	50.6%	41.6%	3.9%
	문화복지 및 일반	21	0.0%	47.6%	52.4%	0.0%
	기타	23	8.7%	43.5%	52.2%	4.3%
지원 경험	1회~2회	174	8.0%	50.6%	43.7%	4.0%
	3회 이상	297	8.8%	51.2%	43.1%	5.4%

5) 심의회의 운영 방식

- 심의회의를 운영하는 방식은 시민, 창작자, 평론가 등이 참여하는 다면심의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선정된 심의위원회에 의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현행방식이 적절한 의견이 27.8%로 나타남.



[표Ⅳ-14] 심의회의 운영 방식

(질문 : 귀하께서는 향후 심의회의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무엇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응답자 수	현행유지	임기가 보장된 책임심의위원회에 의한심의	시민, 창작자, 평론가 등이 참여하는 다면심의	공유형 지원 심의제	기타	
전체	471	27.8%	25.9%	46.9%	20.6%	4.0%	
분야	문학	47	36.2%	25.5%	48.9%	10.6%	2.1%
	시각예술	63	30.2%	25.4%	42.9%	20.6%	6.3%
	연극뮤지컬	124	26.6%	25.0%	46.0%	22.6%	5.6%
	무용	35	28.6%	31.4%	54.3%	17.1%	2.9%
	음악	81	30.9%	24.7%	40.7%	18.5%	4.9%
	전통예술	77	27.3%	22.1%	50.6%	20.8%	1.3%
	문화복지 및 일반	21	19.0%	38.1%	38.1%	14.3%	0.0%
	기타	23	8.7%	30.4%	65.2%	47.8%	4.3%
지원 경험	1회~2회	174	32.2%	24.7%	47.7%	19.5%	1.7%
	3회 이상	297	25.3%	26.6%	46.5%	21.2%	5.4%

6) 지원심의회도 운영 관련 개선점

- 전반적으로 투명한 심의과정 안에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심의위원을 중심으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룸.

[표Ⅳ-15] 지원제도 운영 관련 개선점

구분	내용	
지원심의회도 개선 방향	지원 방향에 대한 목표 설정이 우선되어야 함 현장 예술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필요	
공모 및 지원단계	지원과 관련된 행정절차 간소화 심사일정(서류심사일, 인터뷰 진행일)등에 대한 사전공지 심사일정 정리화 현재의 장르구분 내 세부장르별로 심의위원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 중복된 서류작업 간소화	
심의위원 풀 구성	심의위원 풀 구성 시 협회·단체 추천은 새로운 기득권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 필요 신뢰할 수 있는 현장예술가 중심의 심의위원 풀 구성	
심의위원회 구성	지원단체 및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위원 이해도 제고 필요 심의위원 대상 사전교육 필요 심의위원의 책임성 강화 심의위원 자질 검증 필요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심의위원 선정 심사부터 모니터링, 컨설팅까지 가능하도록 심의위원 책임성 강화	
심의회의 과정	심의기준	심의기준을 명확화하여 각 기준에 따른 피드백 필요 정성적 평가기준 강화 예술적 흐름과 대중성을 함께 가능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지역안배기준 마련 필요
	회의 운영 방식	공개심의제도 도입 필요 장르 특성상 서류상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은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한 실질적인 평가가 강화되어야 함 충분한 검토를 위한 심의 시간 확대 필요
심의결과 통보 및 사후 관리	선정 및 비선정에 관한 근거 및 세부평가결과 공개 사후 구제제도에 대한 확대 옴부즈만 제도의 확대 및 실효성 제고 지원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컨설팅 지원 필요 심의결과에 관한 세부적인 심사평이 공개되어야 함 결과발표 이후 심의과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정보 공개 심의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 제안 이의제기 간소화 및 구체적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화	

7) 지원심의회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 공개성을 강화하여 심의제도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심의위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심의 이후 결과에 대한 명확한 공개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의견이 다수 있었음.

[표Ⅳ-16] 지원심의회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구분	내용	
공모 및 지원단계	공고기간 등에 관한 안내를 SNS나 메일로 발송 블라인드 공모 방식 제안(서울문화재단에서 실시 중)	
심의위원 풀 구성	정통성 있는 협회를 통해 예술적 성취도가 높은 심의위원을 추천받아 후보군 구성 현장 중심의 심의위원 위주로 심의위원 풀 구성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들의 사전회의 및 오리엔테이션 시간 확보 심의 이후 지원자 대상으로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의 태도, 자질 등에 관한 설문 등을 통해 심의위원 검증(차후 심의위원에서 배제 등 조치) 각 장르위원을 확대(분야 별 3인 이상)하고 상임위원으로 전환하여 지원심의 평가의 전과정에 대한 책임성 제고	
심의회의 과정	심의기준	지속적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예술가 우대 필요 특정단체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안식년' 을 두는 것을 제안 (ex. 3년 연속 지원 시 1년 제외) 신규진입 단체나 예술가의 경우 성장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필요
	회의 운영 방식	서류심사 보다는 면접이나 현장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 제안 지원단체가 참여하는 공개심의 제안 시민평가제도의 부분적 도입 제안 현장에서 실연 이후 평가를 듣는 공개오디션 방식 제안 시민으로 구성된 감사단을 통해 심의 객관성 제고 예술가, 시민 등 다양한 층위가 참여하는 다면심의 제안
심의결과 통보 및 사후 관리	지원금 사용 등에 관한 모니터링을 통해 횡령/배임 관련 단체는 공개 후 지원대상에 배제 개별사업에 대한 총평 제시 이의제기 이후 처리 기간 및 절차 등 공개 지원자 희망 모니터링 제안	

제2절 심의위원 FGI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제도에 대한 상호 분석을 통해 향후 발전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일시 : 2018년 1월 29일(월) 14:00
- 장소 : 예술가의 집 3층 세미나실1 (종로구 동숭길 3)
- 참가자

[표Ⅳ-17] 심의위원 FGI 참석자

구분	성명	소속
공연예술	김○○	공연예술산업정책연구소 소장
	한○○	프리랜스 작가
시각예술	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교수

[그림Ⅳ-3] 심의위원 FGI 진행 사진



2. 조사 결과

가. 심의제도 전반에 관한 의견

□ 책임심의위원제도의 보완을 통한 개선 제안

- 현재의 심의제도는 공정성, 투명성, 민주성에 치중하여 시민참여와 공개추천방식 등의 방식을 차용하나, 이것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스스로 전문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관리, 감독의 권한을 포기하고 책임행정을 회피하고자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음.
- 현재 운영중인 공개플랫폼 방식보다는 2016년도까지 추진되었던 책임심의위원제도를 바탕으로 정밀한 보완을 통해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함.
- 책임심의위원제도의 지속을 통해 위원들이 심의한 사업에 대한 책임감 부여와 지속적 멘토 역할이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 사업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과 평가에 긍정적임.

□ 심의위원들의 전문성과 자질 확인을 위한 정확한 진단과정 필요

- 지원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가장 핵심적 사항은 심의위원 풀 구성시부터 다각적인 방면의 검증을 통한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자질 확보에 있음.
- 객관성, 공정성 확보라는 명목으로 시민참여, 공개추천 등의 방식에 치우치기 보다 다양한 검증장치를 마련하여 전문성이 확보된 심의위원 그룹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나. 심의 준비단계

1) 심의위원 풀 구성

- 다각적 검증단계를 거쳐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 자질 확보가 가장 선행되어야함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심의위원후보자 공개추천제도는 위원 자질에 대한 증명에 허점이 많음.

-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기존 심의위원과의 친분관계, 인맥으로 인한 추천 현상이 발생하며, 이는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수준을 정확히 검증하기 어렵게 만듦.
- 일부 예술계 단체 및 협회의 지역이권 싸움 등으로 변질되어 공정한 후보자 선정이 안 될 수 있음.
- 공정성, 개방성의 명목으로 공개추천제도를 도입하여 심의위원들의 질과 수준을 낮추기보다는,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다각적 검증을 통해 수준 높은 심의위원 후보자군을 구축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임.

2) 심의위원회 구성

□ 책임심의회위원제도의 지속적 보완을 통한 제도 유지가 필요

- 2017년부터 후보 무작위 추천방식을 통한 위원회 구성방식을 채택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심의위원의 적격여부가 불분명하고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 가능함.
- 심의위원 풀 구성시 본인동의 절차가 없어 풀 포함여부를 본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의에 대한 교육, 개인정보 갱신 등 사전준비가 어려우며 섭외 시 위촉 거부 등이 발생 가능함.

다. 심의 진행단계

1) 심의기준

□ 심의위원들의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평가태도 확보가 필요

- 지원단체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검증, 이해 없이 서류심사(레퍼런스)만으로 지원단체의 역량과 전문성을 평가하는 사례를 종종 발견함.
- 이는 심의위원들의 태도와 심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심의결과가 특정심의형태에 따라 합격여부가 결정되지 않도록 심의위원들의 평가태도를 유도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심의기준의 명확화가 필요

- 신규사업과 이미 진행 중인 몇년 이상의 지속사업이 동일선상에서 심의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또한 동일한 지원사업이 매번 다른 기준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어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함.

2) 심의방식

- 각 그룹별 교차평가를 거쳐 전문 심의위원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다면평가 제안
 - 평론가 그룹과 창작자 그룹으로 이원화된 전문평가단과 대규모 시민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서로 교차시켜 본 뒤 전문 심의위원의 직관을 더해 최종결론을 내리는 방식을 추천함.
 -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말하는 시민의 참여와 공정성 측면에서도 맥을 함께하며, 심의과정의 투명성 측면에서도 안전한 방안임.
- 심의 전 심의위원들이 충분한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요구됨
 - 간혹 지원사업에 대한 목적, 취지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갖추지 못한 위원들이 있음. 심의를 진행할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미션, 비전, 지향하는바 등에 대한 최소한의 인지가 되어야함.
 - 단순히 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추기기보다, 심의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심의위원 집단 간 충분히 목적하는바에 대한 이해와 동의과정이 전제되어야함.
- 충분한 심의 준비과정을 통해 심의의 몰입도를 높여야함
 - 현재는 한명의 심의위원이 너무 많은 양의 심의 양을 소화해야함. 사전에 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어 사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대한 양과 급박한 심의 추진일정으로 인해 대부분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움.
 - 심의위원들이 하루 안에 모든 심의 건수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심의에 몰입도와 형평성이 온전하다고 하기 어려움.
 - 또한 지원분야별 배정된 기금 총액은 정해져있고 심의위원들은 심의가 진행됨에 따라 남은 기금액 소진을 염두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지원단체의 합격여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심의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방안은 부적절함.
 - 다양한 층의 시민들이 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과 심의과정에 고르게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공정성과 민주성에 대한 잘못된 개념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임.
 - 공정성, 개방성을 이슈로 심의과정에 일반 시민을 참여시키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예술의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려운 제도로 보이며, 시민의 참여는 전문성을 요하는 예술 심의라는 영역과 부합하지 않음.
 - 또한 심의과정에 시민참여를 시킬 수는 있으나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시에는 예술에 대한 독창성과 대중성 간의 전문가적 판단과 구분이 방해된다고 사료됨.

라. 심의 이후단계

1) 심의 결과 통보

- 간단한 총평과 심의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제공 유지
 - 현재는 심의결과 통보시 심의위원 명단과 간단한 총평 정도를 공개하고 있음.
 - 결과 통보방식은 현행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너무 많은 정보공개는 오히려 그만큼의 시비를 가려야하는 역효과를 보일 수 있음.
 - 통보의 방식과 공개정보 수준에 대한 개선 고민보다는 이후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사후관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주는지가 중요함.
- ombudsman 제도 보완 필요
 - 2017년 시행된 ombudsman의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총 9건의 이의제기 신청이 들어왔으며, 대처결과에 대한 전달과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의신청자(단체)만 알 수 있음.
 - 2017년 첫 도입 이후로 점차 ombudsman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활동사항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의제기시 실명 접수를 제안함.

- 사업결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의제기를 할 시에는 정확한 실명과 소속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익명의 투고는 심의위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상황 전달을 위한 적극성을 저해시킴.

2) 사후 관리

□ 수혜사업의 종료시 사업 결과에 대한 공개, 평가가 이루어져야함.

- 선정된 지원자의 지원사항을 공론화(일반에 공개)하여 지원 수혜자가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의무(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지원제도의 최종 목표는 완성도 높은 예술 창작물이 국민 향유 제고까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후평가는 필수적임.
- 최초 심의내용과 사업성과를 통해 지속적 지원여부에 대한 판단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제2절 내부 관계자 FGI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의 내부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의제도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파악하여 향후 발전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일시 : 2018년 6월 22일(금) 10:30
-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술가의 집(대학로) 세미나실
- 참석자 : 총 5명

[표Ⅳ-18] 내부관계자 FGI 참석자

구분	성명	소속
국제교류부	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김○○	
공연지원부	김○○	
순회사업부	배○○	
시각예술부	서○○	

2. 조사 결과

가. 심의 조직

□ 시기에 맞는 조직구조의 유기적 변화 필요

- 약 3,4년 주기로 예술위원회의 조직은 다양하게 변화되어왔으며, 과거 지원심의를 담당하는 지원심의총괄부가 있었음. 장르별 나누어져있는 지원총괄부서가 있었으나, 예술(창작)지원부로 통합되면서 현재까지 사업과 심의를 병행하는 구조가 됨.
- 행정적인 측면에서 조직을 분류시킨 것도 있지만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부서를 전문화, 특성화 시키고자하는 전략적 접근은 미비했음.
- 창작과 향유의 측면에서, 향유는 크게 변하는 것이 없지만 창작은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끊임없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방식이 다른데, 기관 차원의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환경변화를 민감하게 예측하고, 통합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해야 함.

□ 지원심의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의 역할 및 필요성 대두

- 심의의 투명성, 공정성과 더불어 전문성을 요구받던 과거에는 장르별로 지원부서를 쪼개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구분이 더 강화될 것이고 지원부서간 통합은 불가능해보임.
- 그러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원기구로서의 대표성을 지니기 때문에 지원사업 총괄부서의 생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사업 운영부서, 기획부서, 심의-평가부서는 개별적으로 분절되어 기능하는 것이 옳바르고 그것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총괄부서가 필요하다고 봄.
- 문학지원부가 지원사업 총괄업무를 담당하게 된 뚜렷한 의도 및 배경이 있지 않았으며, 조직개편 당시의 부서 여건상 구분되어진 면이 있음.

□ 통합적인 DB구축 미흡으로 인한 혼선 및 장애요소 해결방안 필요

- 예술위 지원사업은 통계를 내서 파악해야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이 같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기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제시해주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잘 구축하여 소화하는 부서도 있지만, 그것은 부서가 자체적으로 개선점을 찾은 것이고 기관이 전체적으로 적용점을 마련한 것은 아니며, 타 부서의 노하우가 잘 공유되지 못함.
- 내부적으로 통합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 개별적으로 찾아보면서 자체적으로 DB를 만들어서 구축해야 하고, 이는 심의위원 선정 중복, 지속 평가에 대한 문제점 등 심의위원 선정시 혼선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부서별 위원 선정 시기 등이 다르다보니 타 부서에서 선정하는 후보군에 대한 중복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함.
- 기관 차원에서 통합적 DB구축을 통해 부서 담당자간 충분하고 지속적인 소통구조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야할 것으로 사료됨.

나. 심의 예산

□ 사례비 증액을 통해 심의위원들의 심의 몰입도 및 전문성 극대화 유도 필요

- 현재 심의 관련 예산 중 운영비는 약 3.5억원이며 그중 심의위원 사례비는 약 2.6억원을 차지하는데, 이는 한해 지원사업 전체예산에 비교해보았을 때 굉장히 적은 예산 편성으로 보임.
- 타 광역재단에 비해 심의사례비가 다소 낮게 책정되어있으며, 심의위원들이 심의 전에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심의 당일 현장에서의 심의진행을 살펴볼 때 현재의 심의사례비는 대폭 증액을 해야 한다고 판단함.
- 간혹 배정된 사례비 지급이 원활치 않아 부서별 운영비로 사례비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전체적으로 심의비가 여유 있게 있어야한다고 생각되며 사업에 대한 운영비는 사업예산으로 쓰여야 사업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임.

다. 심의 규모

□ 질 높은 심의 환경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해외사례 중, 일정기간동안 숙소를 마련하여 심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과거 동일하게 진행했던 경험이 있었음.
- 심의일정이 길어지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만, 비용 절감을 이유로 심의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아쉬움.
- 또한 매년 지원보다는 다년지원(2,3년) 방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장치를 마련해주면 매년 심의를 위한 공력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을 예상됨.
- 몇몇 광역재단들은 심의진행시 제3자가 심의현장을 모니터링하는 참여관람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나, 이 또한 회의록 등 작성과정에서 조작, 조정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현장의 영상촬영을 제안함.
- 옴부즈만, 이의제기 발생시 현장의 의견, 상황을 영상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음.

□ 심의평 제출을 통한 심의위원들의 적극성 유도

- 2017년부터 일부사업에 ‘심층검토제’ 를 적용하여 심의위원들이 각자 심의한 건에 대해서 3~5줄 가량의 짧은 심의평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해왔음.
- 심의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 심의현장에서의 질 높은 심의결과 유도를 위해 추진해왔으나, 강제성을 띄지 않는 권고사항이라 부서별 담당자들의 의지에 따라 심의위원들에 대한 요구도가 모두 다름.
- 부서간 통일된 심의평 작성기준 및 규칙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심의위원들의 심의참여에 대한 적극성을 확보해 나가야 함.

제4절 전문가 자문회의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제도의 전반적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자문 실시
- 일시 : 2018년 2월 22일 (목) 10:00
- 장소 : 기분좋은큐엑스 회의실
- 참석자

[표Ⅳ-19]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자

일시	성명	소속
2월 22일	윤○○	(사)한국문화기획학교 이사
	이○○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그림Ⅳ-4]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사진



2. 조사 결과

□ 책임심의위원제도의 강화 필요

- 예술가들의 단계적 시장 진입을 도와주려면 책임심의위원제도 없이는 불가능함.
- 책임심의위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심의과정과 평가, 컨설팅까지를 포함한 전체과정의 예산을 현재보다 약 3배는 늘려야 할 것으로 예상함.
- 예술생태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며, 이 과정이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임.
- 책임심의위원이 심의 뿐 아니라,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 컨설팅하여 점차 사후지원제도 및 책임심의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삼아야 함.

□ 최고예술과 최초진입예술의 구별된 지원방식 필요

- 지원제도의 목적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심의제도 자체가 계속 혼선을 일으킬 수밖에 없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목표는 최고 예술들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지원해서 수월성의 기준들을 제시하는 것임. 모든 지원단체들에게 고르게 나누어주는 것은 예술위의 기능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됨.
- 성장가능한 팀들을 발굴해서 최고예술가로 키워주는 것과 최초진입예술가들의 예술시장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것이며, 이 두 그룹을 위한 지원방식이 갖추어져야 함.
- 대표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중앙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예술가, 신진예술가, 생활문화 등과 같은 지원은 광역, 기초재단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봄.

□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에 대한 고민 필요

- 국가는 직접지원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간접지원(창작인프라) 구축하여 예술창작자체를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예술창작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더욱 기능해야 한다고 판단됨.

- 창작 자체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오히려 창작결과물에 대한 대중과의 만남, 유통, 진출의 방향으로 가는 고민이 더욱 필요해보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부, 광역재단, 기초재단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직접지원 및 간접지원의 다양한 연계방안 및 역할구조를 다듬어 가야함.

□ 심의방식의 단순화를 제안

- 복잡하고 다양한 평가지표는 절대로 신뢰도를 높여주지 못함.
-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평가요소를 세분화시키는 행위는 오히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스스로 전문성과 위상을 낮추고 평가에 대한 책임성을 희석시키려는 태도로 보일 수 있음.

□ 정성적 평가에 대한 다양한 심사방식 개선

- 예술에 대한 모든 평가는 정성적 평가가 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정성적 평가의 한계는 기획안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인터뷰, 사후심사, 현장심사 등 질적 심사를 강화해야함.

□ 사후관리 컨설팅에 위한 정밀한 장치 마련

- 떨어진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기획안을 쓰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이런 시스템을 형식적인 아닌 실질적으로 도와줘야할 필요가 있음.
- 언제든지 신진예술가들이 가서 무엇에 지원할 수 있는지 컨설팅 받고, 기획서 등의 가이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상당수 불평들을 해소할 수 있음.

제5절 소결

- 본 장에서는 심의회도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예술관계자 설문조사와 심의위원 FGI, 전문가 자문회의의 진행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정리함.
- 심의제도의 각 절차에 따라 도출된 설문조사, 심의위원 FGI, 내부 관계자 FGI, 전문가 자문회의의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Ⅳ-20] 절차별 의견수렴 이슈 정리

구분	설문조사	심의위원 FGI	내부 관계자 FGI	전문가 자문회의
지원심의 제도 전반에 관한 의견	<p>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지속적 의문 제기</p> <p>지원방향에 대한 전반적 목표설정 필요</p> <p>신규단체, 신진예술가가 선정되기 어려운 심의구조</p>	<p>책임심의관제의 보완을 통한 전반적 개선 필요</p> <p>기금운영에 대한 독립성 보장 필요</p>	<p>통합적인 DB구축으로 부서간 혼선 및 장애요소 해결 필요</p> <p>지원심의를 담당하는 총괄부서 마련 필요</p>	<p>책임심의관제 강화 필요</p> <p>최고예술과 최초진입 예술의 구별된 지원 방식 필요</p>
공모 및 지원단계	<p>행정절차 간소화 필요</p> <p>심의 진행방식 및 심의기준에 대한 명확한 공지 필요</p>	-	<p>다년지원, 장기지원 등 지원사업의 성격 다양화 필요</p>	-
심사위원 후보단 구성	<p>현장 예술가 중심의 심의위원 후보단 구성 필요</p> <p>심사위원 후보단이 편중되지 않는 것이 중요</p> <p>협단체 추천과 공개 모집방식 병행 적합</p>	<p>공개추천방식은 자질에 대한 검증이 어려움</p> <p>심의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 방안 고민 필요</p>	-	<p>정교하고 완벽하게 짜여져야함</p> <p>분야별, 사업별, 사업 규모별, 수준별 세밀한 분류 필요</p>

구분	설문조사	심의위원 FGI	내부 관계자 FGI	전문가 자문회의
심의 위원회 구성	<p>사전 이해도가 낮은 심의위원 배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p> <p>사업별 적합한 심의위원을 직접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p>	<p>심의위원 후보단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되면 위원회 구성방식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음</p> <p>심의위원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심의의 타당성 및 객관성 확보가 필요함</p> <p>책임심의위원제의 지속적 보완 필요</p>	-	<p>책임심의위원회제 강화를 통해 심의과정, 평가 컨설팅을 포함하는 전 과정을 함께 다루어야함</p> <p>최고심의위원들을 선정하여 대표예술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 지원제도의 확대 명분으로 활용, 이를 위한 운영예산의 재배치 필요</p>
심의회의 과정	<p>정성평가기준 강화 필요</p> <p>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다면공개심의회가 적합</p>	<p>심의위원 사전 오리엔테이션 진행 필요</p> <p>심의위원회에 할당된 심의건수 조절 필요</p> <p>심의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p>	<p>심층검토제의 강화</p> <p>심이사례비 증액을 통해 심의 몰입도 및 전문성 극대화 유도 필요</p> <p>심의과정을 영상촬영하여 이후 문제발생시 확인</p>	<p>심의방식은 단순할 수록 좋음</p>
심의결과 통보	<p>개별 지원자에 대한 심사평 공개 필요</p> <p>선정 근거 및 세부평가 기준 공개 필요</p>	<p>심의결과 공개 범위는 현행 유지가 적절함</p> <p>이의제기와 사후 관리에 대한 적극적, 체계적 개선이 필요</p>	<p>심의평 제출을 통한 심의위원들의 적극성 유도</p>	<p>현행유지 적절함 공개범위를 늘린다 해도 탈락단체는 불평이 있기 마련임</p>
사후 환류 및 관리	<p>실효성있는 이의제기 및 사후피드백 시스템 마련</p> <p>지원사업 선정된 단체에 대한 사후평가 필요</p> <p>심의 탈락자에 대한 컨설팅 제안</p>	<p>수혜자가 사업을 종료하는 시점에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공개가 이루어져야 함</p> <p>사후 평가결과를 향후 지속적 지원여부에 대한 판단근거로 활용할 필요</p>	<p>옴부즈맨 제도 도입 이후 위원들의 평가 태도 및 적극성이 달라짐. 지속적 보완 필요함</p>	<p>사후지원제도에 대한 고민 필요</p> <p>창작 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줄이고, 오히려 창작결과물에 대한 대중과의 만남, 유통, 진출의 방향 제안</p>



제5장

지원심의제도 개선방안

제1절 : 심의단계별 개선 대안 도출

1. 사전공모 단계
2. 심의위원회 구성 단계
3. 심의 진행 단계
4. 결과 보고 단계
5. 사후 관리 단계

제1절 심의단계별 개선 대안 도출

1. 사전공모 단계

가. 현황 및 문제점 도출

- 공모 단계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개선대안을 도출함.

[표V-1] 공모 단계의 현황 및 문제점 도출 (2016년 기준)

구분	현황	문제점
공모 단계	온라인으로 사업별 공개 공모를 진행하며, 사업 담당 부서별 개별적 공모 진행함 지원 신청건수는 3,303건 문학지원부가 문예진흥기금사업 총괄업무를 담당함	독립된 심의전담조직의 부재 사전공지 및 심의방식에 대한 전달 미흡 신청건수에 비해 선정건수가 1/3정도로, 많은 양의 심의가 이루어지나 선정되는 비율은 적음

나. 개선 대안

□ 지원기준의 강화를 통해 심의지원수와 선정건수의 조율 필요

- 현재까지는 공모사업 진행시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이 광범위하여 지원단체간 역량과 질적 수준차이가 크고 다양한 단체들이 지원해왔음.
- 적절한 지원기준을 마련한다면 공모 진행시 지원건수와 심의건수를 적절히 조율하여 각 심의 건에 대한 집중도와 충실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 이는 지원단체를 제한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마다 적절한 최소한의 역량 기준을 마련하여 미달되는 단체들은 스스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극 및 유도하고, 기준에 합치는 단체들은 현재보다 더욱 집중적으로 심의에 몰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 또한 지원단체의 지원기준 설정시 사업별 특징을 반영한 기준 조정이 필요하며, 지원기준으로 제안하는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음.
 - 지원단체의 공연 횟수, 실적, 규모, 협력기관 확보여부, 사전준비 여부 등
- 지원기준 강화를 통해 적정 심의건수를 조정하여 예산 절감 효과를 유도할 수 있으며, 절감된 예산을 활용하여 심의제도의 운영 효율을 제고하고, 심의 운영 관련 워크숍 활성화 등에 투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부서간 통합적인 심의 운영체계 공유

- 현재는 심의일정 진행시 정기공모를 제외하고는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각 부서간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부서 내 담당 공모사업별로 심의일정을 각각 진행함.
- 그러나 현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타기관의 사례처럼 지원심의를 위한 독립된 부서 운영을 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부서간 소통 및 의견공유를 위한 환경 마련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심의 운영 전,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모든 부서가 참석하는 통합워크숍을 진행하여 부서간 심의 계획 및 세부일정에 대한 상호간 공유를 유도하여 심의 운영에 대한 통합적 구조를 점차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함.
- 부서간 통합워크숍 진행시 다루어야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음.
 - 부서별 심의방향, 심의내용, 사례, 심의 주안점, 심의위원 자질에 대한 내부 평가 등의 공유
- 이를 통해 부서별 운영매뉴얼 구축뿐만 아니라, 통합적 구조에서의 심의관련 운영 매뉴얼 제작 및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하며, 심의절차별 부서간 내부 논의체계를 정례화하고 상시적으로 진행현황을 공유 할 수 있는 내부 구조를 마련해야함.

2. 심의위원회 구성 단계

가. 현황 및 문제점 도출

- 심의위원회 구성 단계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개선대안을 도출함.

[표V-2] 심의위원회 구성 단계의 현황 및 문제점 도출 (2016년 기준)

구분	현황	문제점
심의 위원 회 구성 단계	심의위원 후보자 공개추천제 도입 (주요 예술단체, 협회의 추천) 심의위원 후보군 943명 구성(2017년) 심의위원 후보 무작위 추천방식 도입	공개추천방식은 심의위원 자질에 대한 증명이 어려움 심의위원 풀이 장르별로 고르지 않고 편중되어 있음 심의위원 자질 검증 미흡, 전문성 확보 어려움 무작위추첨방식은 예술위의 책임성을 오히려 약화시킴

나. 개선 대안

- 심의위원후보군 온라인등록제를 통해 후보군에 대한 DB 구축 및 관리 체계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추천, 타인 추천시에 대한 후보군 신청서 양식을 각각 제공하고 있으며, 작성 후 각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접수하도록 하여 후보군을 구축하고 있음.
 - 대상 자격을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제시하고 있음.
 - 문화예술의 창작(연기, 연주, 스태프 포함) · 비평 · 연구 · 기획 · 교육 · 언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
 - 문화일반 · 복지, 지역문화, 국제교류, 문화정책, 예술경영 ·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

-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 사례를 통해 살펴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경우 홈페이지 상에 후보군 등록을 위한 온라인시스템이 갖추어져있어 등록시 즉각적인 후보군의 파악과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화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있음.
 - 온라인 등록시스템은 이처럼 다양한 등록조건에 따른 분류 및 통계가 가능하며 심의위원 자격검증을 위한 과정을 체계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됨. 이에 단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통합적인 후보군 관리 및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함.

□ 심의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 추천선정위원회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으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원활치 못했던 주된 이유로는, 단기간에 일정 양 이상의 후보군을 구성하려다 보니 자격조건이 정밀하지 못했으며,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기초하여 자격요건(최소경력 기간, 유사분야 활동사항 등)을 요구했던 바 있음.
- 추천선정위원회를 통해 풀을 구성해보니 예상했던 풀 구성규모에 비해 물량이 다소 모자랐으며, 그런 이유로 실질적으로 심의위원을 걸러내는 기능은 미흡했음이 드러남.
- 그러나 과거에 진행했던 추천선정위원회의 운영방안 및 절차를 보완한다면 심의위원 후보군 구성시 보다 완벽하고 효율적인 후보군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V-3] 심의위원 추천위원회 구성방안

구분	내용	특징
구성 단계	예술위 자체적으로 확보한 전문가들로 구성 장르별/부서별 고른 구성 필요 예술위의 심의관련 내부 행정인력 포함 추천위원회 구성인원의 주기적 변경 매년 추천위원의 구성원 변경을 통해 형평성 확보 (신규인력7:기존인력3)	책임성 강화를 위해 추천위원회의 명단 공개 추천위원회의 명단 공개시 심의위원 선정 과정에서 보다 높은 책임성과 사명감이 유도될 것으 로 여겨짐 추천위원회의 심의위원의 자질과 태도에 대한 신중 한 예측 유도
운영 단계	추천위원회의 적절한 운영시기 설정 모든 사업을 추천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함 정기공모 등 공통된 사업군을 모아 시기별 추 천위원회 운영이 필요함	후보군 DB를 적극 활용한 심의위원 선정 후보군 온라인등록제를 통한 DB를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심의위원 선정 연령, 성별, 장르, 공공/민간, 현장/학계 등

- 추천위원회 구성단계의 주요 특징으로 추천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여 추천위원들이 심의위원 선정과정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심의위원들의 자질과 태도를 더욱 신중히 예측하여 심의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임.
- 추천위원회 운영단계의 주요 특징으로는 후보군 DB를 통한 복합적 요건을 고려할 수 있는 심의위원 선정이 필요함이 도출되었으며, 추후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시 적절한 적용점을 통해 지속적인 추천위원회의 시행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3. 심의 진행 단계

가. 현황 및 문제점 도출

- 심의 진행 단계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개선대안을 도출함.

[표 V-4] 심의진행 단계의 현황 및 문제점 도출 (2016년 기준)

구분	현황	문제점
심의 진행 단계	<p>심의위원 개별 채점제 방식 적용 전체 심의운영 예산 약 3.4억원 심의위원 사례비 약 2.5억원 심의위원사례비가 전체 심의운영 예산에서 약 74%차지함. 총 선정건수 1,038건</p>	<p>심의위원 1인당 심의건수가 높아 질적 완성도 및 집중도 결여 사전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적절한 검토량 제공 필요 심의 투명성 확보 필요</p>

나. 개선 대안

□ 심의위원 사전 워크숍 강화

- 내부관계자와의 인터뷰 진행시 심의 진행과정에 대한 지적사항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대부분 심의위원들이 심의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심의에 임하는 자세에 각각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음.
- 이는 심의 품질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 요소로 여겨질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대한 전문성 및 수용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위와 같은 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위원 대상의 사전워크숍을 강화하여 심의위원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춰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는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심의위원이 심의과정에 더욱 몰입하여 심의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사전워크숍 진행시 심의위원들에게 전달되어야할 주요 체크리스트로는 심의위원 요강, 심의방향성 및 책임성 등의 전달, 심의내용 사전 검토여부, 평가항목 등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심의의 품질 향상을 유도해야 함.

□ 심의품질 향상을 위한 환경 마련

- 심의 진행시 심의환경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의견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대부분 다량의 심의건수를 제한된 시간에 심의해야하는 환경 자체를 지적한 바 있음.
-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신청건수는 3,303건이며 그 중 선정건수는 1,038건으로 약 1/3가량이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심의위원들에게 적정량의 심의건수와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어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현재 심의진행시 장르별 특성을 반영한 심의일정, 소요시간이 산정되어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장르별 대략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른 심의일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지원단체의 서류 제출시 몇몇 사업에 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명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V-5] 4개 장르(연극,무용,전통예술,뮤지컬)별 제출서류 안내
(●: 필수제출 ○: 선택 제출)

구분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뮤지컬	비고
1. 지원신청서 (지정양식)	●	●	●	●	●	최대 A4 20장
2. 이미지 스케치 (지정양식)	●	●		●	●	최대 A4 5장
3. 대본 (지정양식)	●	○		○	●	제한 없음
4. 악보			●		●	음악 : 3곡 이내 뮤지컬 : 최소 5곡 이상
5. 음원			●	○	●	음악 : 3곡 이내 뮤지컬 : 최소 5곡 이상
6. 저작권 관련 계약서	○	○		○	○	-

주) 각 장르별로 명시된 제출요구 서류의 종류와 수량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명시한 사항과 동일함.

- 이를 바탕으로 1개 사업당 검토시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각 장르별 요구되는 제출서류를 분석하여 심의절차별 소요시간을 도출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V-6] 심의 장르 및 형태별 심의 소요시간(예시) (2016년 기준)

장르	심의 절차		신청 건수	산정 기준 (1건 기준)	건당 예상 검토시간	
문학	1차	작품심의	141	- 작품별 선택 제출 시,시조,동시 : 7편 수필 : 5편 단편동화 : 2편 단편소설,희곡,평론 : 1편 장편소설,장편동화,장막희곡 : 원고지 100매	약 20분	총 40분
	2차	서류심의		- 지원신청서 : A4 20매	약 20분	
시각예술	1차	서류심의	731	- 지원신청서 : A4 20매	약 20분	총 45분
	2차	PT/인터뷰 심의		- PT발표 : 15분 - 인터뷰 : 10분	약 25분	
연극	1차	서류심의	700	- 지원신청서 : A4 20매 - 이미지스케치 : A4 5매 - 대본 : A4 50매 - 저작권관련계약서 : A4 1매	약 35분	총 80분
	2차	PT/인터뷰 심의		- PT발표 : 15분 - 인터뷰 : 10분	약 25분	
	3차	쇼케이스		- 20분 지정	약 20분	
무용	1차	서류심의	341	- 지원신청서 : A4 20매 - 이미지스케치 : A4 5매 - 대본 : A4 50매 - 저작권관련계약서 : A4 1매	약 35분	총 80분
	2차	PT/인터뷰 심의		- PT발표 : 15분 - 인터뷰 : 10분	약 25분	

장르	심의 절차		신청 건수	산정 기준 (1건 기준)	건당 예상 검토시간	
	3차	쇼케이스		- 20분 지정	약 20분	
음악	1차	서류심의	411	- 지원신청서 : A4 20매 - 악보 : 3곡 - 음원 : 3곡	약 25분	총 50분
	2차	PT/인터뷰 심의		- PT발표 : 15분 - 인터뷰 : 10분	약 25분	
전통 예술	1차	서류심의	423	- 지원신청서 : A4 20매 - 이미지스케치 : A4 5매 - 대본 : A4 50매 - 음원 : 5곡 - 저작권관련계약서 : A4 1매	약 45분	총 90분
	2차	PT/인터뷰 심의		- PT발표 : 15분 - 인터뷰 : 10분	약 25분	
	3차	쇼케이스		- 20분 지정	약 20분	
뮤지컬	1차	서류심의	115	- 지원신청서 : A4 20매 - 이미지스케치 : A4 5매 - 대본 : A4 50매 - 악보 : 5곡 - 음원 : 5곡 - 저작권관련계약서 : A4 1매	약 45분	총100분
	2차	PT/인터뷰 심의		- PT발표 : 15분 - 인터뷰 : 10분	약 25분	
	3차	쇼케이스		- 30분 지정	약 30분	
예술 일반	1차	서류심의	441	- 해당사업별 상이함		

주) 3차 쇼케이스를 실시하는 4개 장르 중, 연극, 무용, 전통예술은 20분, 뮤지컬은 30분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제시한 내용과 동일함.

- 1차 서류심의시에는 제한된 시간 내에 제출된 모든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사전검토 시기를 통해 충실한 내용 숙지가 전제되어야 하며, 1차 서류심의시에는 사전검토에 대한 최종적 확인의 과정으로 심의에 임해야 함.
- 또한 위와 같이 산정된 심의시간을 통해 심의위원들의 적정 심의사례비 책정을 사전에 산출하여 심의운영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할 수 있음.

□ 심의참관인제 운영

-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관객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몇몇 광역재단의 경우 심의 진행시 심의참관인제도와 유사한 성격의 보조적 장치를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음.
- 심의참관인제는 심의의 투명성 확보 및 심의위원-지원자간 심의 긴장감 유지와 함께 심의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여 심의 자체에 대한 인정과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치로 여겨짐.
- 이는 형태나 유형에 따라 심의참관인제 외에도 공유평가제, 동료평가제, 다면평가제 등으로 불리우며 모두 통일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심의 진행과정을 공개하고 있는 광역문화재단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V-7] 광역문화재단의 심의참관인제 운영 현황

구분	적용범위	대상 및 구성	사전 교육 여부	의견 반영여부	시행 목적
인천 문화재단	전체 공모사업 중 인터뷰심의 일부 공개	공모 지원단체	희망자에 한해 자율적 참관 실시	의견반영 없음	인터뷰심의에 한해 단체들간 상호활동 파악 및 평가 공정성 제고
충북 문화재단	인터뷰심의 공개 - 공연장상주 단체육성지원 사업에 한함	공모 지원단체	희망자에 한해 자율적 참관 실시	의견반영 없음	인터뷰심의에 한해 단체들간 상호활동 파악 및 평가 공정성 제고
대구 문화재단	정기공모에 한해 시행 - 정기공모 2,3월 중 실시 - 추가 및 2차 공모 이후는 참관인제 실시 하지 않음	사업별 총2명 구성 (전문가 1인, 연구원 1인) - 용역업체를 두어 참관인제 시행 - 매년 약 5명의 참관인 후보를 선정	체크리스트 개발 - 용역업체를 통해 심의참관시의 체크리스트 개발하여 참관인에게 제공 - 점수 및 수치화하여 결과 도출	추후 보고서 작성 - 심의과정의 개선점, 방향성 및 기타 의견 도출	부정심사 방지를 위한 심사체계 구축으로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심사 이미지 구축

구분	적용범위	대상 및 구성	사전 교육 여부	의견 반영여부	시행 목적
	참관인제 2014년 도입	- 2017년 기준 총 11회 참관인 투입함			
세종시 문화재단	인터뷰심의 공개 - 공연장상주 단체육성지원 사업에 한함 - 14개 단체 (2017년 도입)	공모 지원단체 및 일반 시민	희망자에 한해 자율적 참관 실시	의견반영 없음	2017년 시범운영 추후 절차 및 공개범위 등을 다듬어갈 예정임
전남 문화재단	전체 공모사업 중 인터뷰심의 공개	공모 지원단체	희망자에 한해 자율적 참관 실시	참관 이후 이의 신청 접수 절차를 두어 내용 반영	심의 신뢰성 제고 및 경력있는 지원 단체의 발표를 통해 신규단체의 간접교육효과 제고
경남 문화재단	전체 공모사업 중 8,90%범위 내 공개 (2018년 도입)	공모 지원단체 및 일반 시민 - 홈페이지 통해 참관 희망자 모집	희망자에 한해 자율적 참관 실시 - 심사안내자료 등 배포	의견반영 없음	2018년 첫도입 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 문화재단 사례 중 심의참관인제를 시행하는 재단은 2곳(대구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한해 시행하는 재단은 2곳(충북문화재단, 세종시문화재단), 그 외 인터뷰 심의시에만 시행하는 재단은 2곳(인천문화재단, 전남문화재단)으로 파악되었음.
- 대구문화재단, 전남문화재단 이외에는 심의참관인제에 대한 운영이 다소 미흡하며 심의참관에 대한 의견반영 및 참관을 위한 가이드(체크리스트) 안내 등은 이루어지지 않음.
- 대구문화재단의 경우, 개별적으로 심의참관인제 운영을 위한 용역기관을 두어 심의과정 공정성, 참관시 의견 반영 등에 대한 전 과정을 살피도록 위탁하고 있음.
- 또한 심의 참관시 참고해야할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참관인들에게 제공하며, 추후 의견을 수치화, 종합하여 결과보고서에 적시함.

4. 결과 보고 단계

가. 현황 및 문제점 도출

- 결과 보고 단계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개선대안을 도출함.

[표V-8] 결과 보고 단계의 현황 및 문제점 도출 (2016년 기준)

구분	현황	문제점
심의 진행 단계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 도입 심의 완료 후 심의총평을 홈페이지에 공개 (총평, 심의위원명, 심의일시, 선정단체 정보) 심층검토제 도입 권고를 통해 심의위원 개별 심의평 작성 유도(개인 심의평은 내부 공유)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결과 전달 미흡 심의결과 공개범위 명확화 필요

나. 개선 대안

□ 심의결과에 대한 2차 검토 진행

- 지원액이 큰 사업, 연속지원사업의 경우 1차 심의결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의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해, 시기를 두어 2차 검증 진행을 제안함.
- 2차 검증을 통해 최초 결정되었던 지원 배정액의 적절성 및 평가에 대한 미비사항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함.

□ 옴부즈맨 제도 보완심의결과에 대한 2차 검토 진행

- 현 심의제도 내에서는 심의절차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심의결과 등의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심의과정 및 결과에 대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여 심의절차 및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 뒤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제공한 이의제기가 가능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모 및 지원신청 접수 절차의 부적정
 - 이해관계 있는 심의위원의 심의 관여 등 심의위원회 구성의 부적정
 - 심의 및 평가방법의 부적정
 - 심의 관련 부정·비위 행위 등
 - 기타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업무처리
- 다만 심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 등 제약사항이 있고, 2017년도 이의신청 접수는 4개 사업에 9건만 접수되어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ombudsman 제도를 상설화하여 심의결과 뿐만 아니라 절차,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체감할 수 있는 피드백이 이의신청인에게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음.

5. 사후 관리 단계

가. 현황 및 문제점 도출

- 사후 관리 단계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개선대안을 도출함.

[표V-9] 사후 관리 단계의 현황 및 문제점 도출 (2016년 기준)

구분	현황	문제점
심의 진행 단계	별도의 사후 관리 없음	사후 피드백 및 컨설팅 에 대한 요구도에 비해 제도적 장치 미흡 심의 운영 전반에 대한 내부 평가 필요

나. 개선 대안

□ 사후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문예진흥기금의 공모사업은 뛰어난 단체를 선정하기 이전에 더 궁극적으로는 지원의 목적이 있음을 인지해야하며, 공모사업 미선정 단체들이 탈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전문가컨설팅 등을 통해 차년도 지원 선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희망단체에 한해 사후 전문가컨설팅을 신청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컨설팅에 대한 의견을 기록하여 동일단체의 차년도 심의시 컨설팅 내용 반영여부,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가야함.

□ 심의위원 이력관리 실시

-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심의 진행 상의 지적사항 중, 심의위원의 자질 검증 미흡과 심의에 충실하지 못한 태도에 대한 애로사항이 다소 드러난 바 있음.
- 이는 심의의 품질과 향상 및 전문성 확보와 더불어 심의위원들의 기본적 자질을 검토하고자 함이며, 지원단체들의 등급화로 리스트를 구성하여 차별하는

현상과는 그 의도와 개념이 구별됨을 이해해야함.

- 잉글랜드예술위원회의 경우 홈페이지 상에 자체평가 키트(Self Evaluation Kit)를 제공하여 지원단체들이 자신들이 지원한 공모사업에서 제시한 역량 및 기준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온라인 평가체계를 제공하고 있음.
- 이처럼 심의위원들의 자질 및 태도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을 제안하며,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내부 부서간 통합워크숍 진행시 이러한 사항에 대한 부서간 공유 및 종합적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심의위원 이력관리와 함께 체크리스트 개발시 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V-10] 심의위원 이력관리 체크리스트 (예시)

단계	항목	내용	점수(5점 척도)
심의 준비	사전 워크숍 참석여부	심의에 임하는 기본적 태도 판단	① ② ③ ④ ⑤
	사전 검토의견서 작성 충실도	사전 충실한 내용 숙지여부 판단	① ② ③ ④ ⑤
	심의 중점사항 숙지여부	심의방향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판단	① ② ③ ④ ⑤
심의 진행	심의 진행시 중립적/인격적 태도 여부	질문에 대한 적절성 및 개인적 성향 표출여부 판단	① ② ③ ④ ⑤
	심의시간 배분 여부	심의건별 적절한 시간배분 유지여부 판단	① ② ③ ④ ⑤
심의 완료	심의평 작성 충실도	심의 전문성 및 몰입도 판단	① ② ③ ④ ⑤

-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후보군 DB에 참고사항으로 함께 기록하고, 매 심의위원 선정시 참고하여 장르별 최적의 심의위원이 선정되어 심의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함.

제6장

부록

제1절 : FGI (심의위원)

제2절 : FGI (내부 담당자)

제3절 : 설문조사 (현장예술 관계자)

제4절 : 설문조사 (광역재단 심의관계자)

참고문헌

제1절 FGI (심의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제도개선방안 연구」
심의위원 FGI

ID : 00-0000

* 인터뷰 정보		
인터뷰(FGI) 일자	일자:	시간:
인터뷰(FGI) 대상자	이름:	소속:

※ 개요 - 심의위원 활동사항

☞ 인터뷰 내용 [간략 기술]

[질 문]

- 귀하가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지원사업과 사업내용은 대략 어떠합니까?
-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시기, 횟수는 어떠합니까?
-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배경은 어떠합니까?

[결 과]

- 각 심의위원들의 심의 활동사항 및 특징 공유

※ 문제점/애로사항 - 심의위원회 구성

☞ 인터뷰 내용 [간략 기술]

[질 문]

- 심의위원회 구성의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활동시 심의위원들을 구성하는 절차와 방식은 어떠하였습니까? (시기별, 사업별 특징)
- 심의위원 구성시 과정과 절차는 얼마나 공정,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심의위원 풀, 심의위원 후보자군 선정시의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 심의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객관성, 신뢰성 등

[결 과]

- 심의위원 구성 절차의 문제점
- 심의위원 구성의 개선과제, 요구사항 등

※ 문제점/애로사항 - 심의 절차

☞ 인터뷰 내용 [간략 기술]

[질 문]

- 심의 전, 중, 후의 과정
- 전반적인 심의과정 중 문제점이 드러난 과정은 무엇이 있었고, 그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 심의 소요기간, 통보방법 등의 통일성은 어떠했습니까?
- 전- 심의를 위한 검토, 사전준비를 위한 충분한 여건이 제공되었습니까?
- 중- 심의유형(서류심사, 인터뷰등) 별 진행과정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후- 절차의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개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생각하십니까?

[결 과]

- 심의 절차의 문제점
- 심의 절차의 개선과제, 요구사항 등

※ 문제점/애로사항 - 심의 기준

☞ 인터뷰 내용 [간략 기술]

[질 문]

- 심의를 위해 제시된 평가지표, 기준은 어떠했습니까?
- 장르별 기준은 명확/적절/납득할만 하였습니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지원단체를 평가하기에 복합적인 측면이 고르게 제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르별 심의기준의 개선을 위해서 차후 방안은 어떻게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 심의 기준의 문제점
- 심의 기준의 개선과제, 요구사항 등

※ 성과 및 차후방안

☞ 인터뷰 내용 [간략 기술]

[질 문]

- 심의과정을 거친 지원자(단체)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 예 : 심의 결과의 수용, 의견수렴에 대한 방안 등

- 심의제도 지속적인 개선 시도를 통해서
- 결과에 대한 의의 제기시 대처하는 방식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음부즈맨, 심의결과 공개 방식 등)

[결과]

- 의의제기시 대처방안
- 심의 결과 만족도
- 심의 차별성 및 의견수렴

※ 발전 방향

인터뷰 내용 [간략 기술]

[질문]

- 심의위원 활동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 심의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기적으로 심의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중장기적 관점에서 심의제도를 개선할 때 제도의 안정화와 지원자의 결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결과]

- 심의제도 발전 방향
- 개선방안

제2절 FGI (내부 담당자)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제도개선방안 연구」

내부 담당자 FGI

ID : □□-□□□

* 인터뷰 정보		
인터뷰(FGI) 일자	일자:	시간:
인터뷰(FGI) 대상자	이름:	소속:

※ 지원사업 운영 조직

[키워드]

- 지원사업 운영 조직구조, 전담 인력의 분포, 부서간 역할 및 협업구조
- 예산 분포 적절성, 독립 부서 마련에 대한 의견
- 심의 일정 진행시의 진행 몰입도
- 심의제도 운영을 위한 내부 조직, 규모, 예산에 대한 개선사항
- 지원사업 운영 절차별 문제점 등

[질문 예시]

- 현재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조직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져있습니까?
- 현 조직 운영에 대한 어떤 보완사항들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원사업 운영 절차(공모단계, 심의단계, 사후단계)별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결과]

- 내부 지원심의제도 운영 조직의 문제점
-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조직의 개선과제, 요구사항 등

※ 심의제도 전반

1. 심의위원 후보군 구성 관련

[키워드]

- 심의위원 후보군 선정방식, 구체적 선정기준, 후보 자질 검증을 위한 정밀성,
- 타기관과의 인적자원 연계방식, 지역 출신 후보군 선정 및 연계
- 후보군의 완결성 확보를 위한 대안, 후보군의 질적, 양적, 구조적 개선사항

[질문 예시]

- 심의위원회 구성의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심의위원 구성시 과정과 절차는 얼마나 공정,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심의위원 풀, 심의위원 후보자군 선정시의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예 : 심의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객관성, 신뢰성 등

[결과]

- 심의위원 후보군 구성 절차의 문제점
- 심의위원 후보군 구성의 개선과제, 요구사항 등

2. 향후 발전 방향

[키워드]

- 심의위원 후보군 구성 이외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 향후 적용 및 보완 가능한 사례
- 지원심의제도 방향성 등

[질문 예시]

- 지원사업 업무진행시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 장기적으로 심의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중장기적 관점에서 심의제도를 개선할 때 제도의 안정화와 지원자의 결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결과]

- 지원심의제도의 전반적 개선 및 발전 방향

제3절 설문조사 (현장 예술 관계자)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제도 개선방안 연구

현장 예술 관계자 설문조사

ID : 00-000

본 조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제도(이하 제도) 개선방안 연구」 의 일환으로 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방안을 조사하는 설문입니다.

조사결과는 연구와 관련된 기초데이터로만 활용할 것이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응답해주신 조사결과를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 1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구기관: 기분좋은큐엑스(주)

새로 바뀐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제도에 관한 안내	
2017년 개선사항	2018년 개선방향
<p>1. 현장 추천을 통한 심의위원 후보군(풀) 제도 도입 - 예술 각 분야 주요 협·단체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 후보군(풀)을 구성하여 운영</p>	<p>협·단체 추천의 제한성 탈피, 자진, 타진 등 개방성 강화를 통한 현장 예술가 참여 확대</p>
<p>2. 심의위원 무작위 추천제 전수 도입 및 운영 - 심의위원 후보군(풀) 중 필요인원의 5배수를 무작위로 추천하고 예술지원 소위원회에서 섭외순위 결정 및 심의위원 위촉</p>	<p>무작위 추천제를 보완하고 심의 전문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부 사업에 책임심의관제 시범 도입 * 책임심의관제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지정 위촉하고 심의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평가, 상담 및 자문역할까지 담당</p>
<p>3. 지원심의회의 절차 개선 - 심의위원의 개별 체점제 방식의 엄격한 적용</p>	<p>심의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참관인제 등 개방형 심의제도 도입 * 외부 참관인제란? 외부에서 추천한 참관인이 심의과정을 참관하도록 하여 심의과정의 공정성 강화</p>
<p>4.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 시행 - 지원심의 관련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지원심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해당 심의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검토하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회신</p>	<p>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 확대(문예진흥기금사업-타기금 및 국고사업) 지원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압 신고제 도입 * 의압신고제란? 지원심의 운영과정에서 내·외부로부터 강요나 청탁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징계</p>

응답자 성명	HP / E-mail
분야(√ 표시)	① 문학 ② 시각예술 ② 연극/뮤지컬 ④ 무용 ⑤ 음악 ⑥ 전통예술 ⑦ 문화복지 및 일반 ⑧ 기타 ()
지원경험(√ 표시)	① 처음 ② 1회~2회 ③ 3회 이상
2017년 사업 지원 여부(√ 표시)	① 지원받음 ② 지원받지 못함 ③ 해당사항 없음(지원경험 없음)

※ 현행 지원심의제도에 관한 인식

문1. 귀하께서는 2017년도부터 새로 바뀐 현행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제도(심의위원 풀제, 심의위원 구성방식 등)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2. 귀하께서는 지원심의제도의 심의기준, 심의절차 등에 대해 공고문을 통해 충분히 이해 하셨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2-1. (①, ② 선택자만 응답) 어떤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셨습니까? (복수응답)

- ① 심의방향 ② 지원대상 ③ 지원심의 기준 ④ 지원심의 절차 ⑤ 기타()

문3. 귀하께서는 2017년도부터 새로 바뀐 현행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제도가 전체적으로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4. 귀하께서는 2017년도부터 새로 바뀐 현행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제도가 전체적으로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심사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현행 지원심의회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다음은 현 지원심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묻는 문항들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또는 √표 해주십시오.

문5. 공모 및 지원 단계에 대해

중요도					구 분	만족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매우 불만 족	불만 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공모 신청 단계에서의 충분한 사전정보(심의기준, 심의절차 등) 제공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응모 접수기간의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심의를 위한 제출 서류(작성항목 및 양식 등)의 적합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심의진행 일정에 대한 사전 안내 여부	①	②	③	④	⑤

문6. 심의위원 풀 구성에 대해

중요도					구 분	만족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매우 불만 족	불만 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심의위원 풀 구성 방법의 적정성 (주요 협·단체로 한정하여 추천 의뢰)	①	②	③	④	⑤

문7. 심의위원회 구성 방법에 대해

중요도					구 분	만족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매우 불만 족	불만 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무작위 추첨에 의한 심의위원 후보자군(5배수) 선정의 적정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추첨된 후보자에 대한 섭외순위를 해당 소위원회 위원 이 지정하는 방식	①	②	③	④	⑤

문8. 전반적 심의과정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 대해

중요도					구 분	만족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매우 불만 족	불만 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심의의 공정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심사과정의 투명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심의위원의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심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	①	②	③	④	⑤

문9. 심의 종료 후 절차에 대해

중요도					구 분	만족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매우 불만 족	불만 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심의결과 공개 방법에 대한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의 적절성 (지원심의옴부즈만 제도 등)	①	②	③	④	⑤

※ 현행 지원심의회제도에 관한 문제점

문10. 귀하께서 현 심의회제도에 관해 각 단계별로 불만족스럽거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중요도에 따라 중복선택 가능)

공모 및 신청 단계	① 공모 모집 기간 및 절차의 적절성
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	② 심의위원 풀을 활용한 심의위원 후보군 구성 방법
	③ 심의위원회 구성방법(현황 : 무작위 추천에 따른 선정)
	④ 심의위원의 전문성 및 심의 적합성
심의기준	⑤ 심의기준의 명확성
심의과정	⑥ 심의과정의 공정성
	⑦ 심의과정의 투명성
심의 종료 후 절차	⑧ 심의결과 공개 및 통보 방법(현황 : 선정단체에 한해 온라인공개 및 개별안내 방식 등)
	⑨ 심의결과 공개의 범위(현황 : 선정결과, 지원배정액, 심의총평, 심의위원 명단 등)
	⑩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의 적정성

문10-1. 귀하께서 '불만족스럽다거나 문제점이다' 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향후 지원심의제도 개선방안

문11. 귀하께서는 지원심의제도 공모 단계 중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원사업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
 ② 심의진행 방식 및 심의기준에 대한 명확한 공지
 ③ 심의진행일정에 대한 명확한 사전 공지
 ④ 응모신청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 제공
 ⑤ 지원신청서류 작성항목의 유연화
 ⑥ 기타 ()

문12. 귀하께서는 예술위원회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인력풀은 향후 어느 영역에서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술가 및 예술단체
 ② 정책 및 행정
 ③ 교육 및 기획
 ④ 비평 및 이론
 ⑤ 유통 및 산업
 ⑥ 언론
 ⑦ 기타()

문13. 귀하께서는 향후 예술위원회 심의제도가 개선된다면, 심의위원 후보군(풀)을 구성하는 방식은 무엇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에 따라 중복선택 가능)

- ① 협회·단체를 통한 추천
 ② 공개모집방식(자천/타천 포함)
 ③ 협회·단체 추천+공개모집 방식 병행
 ④ 기타()

문14. 귀하께서는 향후 예술위원회 심의제도가 개선된다면, 심의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은 무엇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에 따라 중복선택 가능)

- ① 무작위 추천
 ② 사업별 지정 방식
 ③ 무작위 추천+사업별 지정 방식 병행
 ④ 기타()

문15. 귀하께서는 향후 심의회의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무엇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에 따라 중복선택 가능)

- ① 현행 유지(선정된 심의위원에 의한 심의)
 ② 임기가 보장된 책임심의위원회에 의한 심의
 ③ 시민, 창작자, 평론가 등이 참여하는 다면심의
 ④ 공유형 지원심의제
 ⑤ 기타 ()

〈참고사항〉

- 책임심의위원회 제도 : 일정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인사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일정기간 동안 심의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평가, 상담 및 자문역할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
- 다면심의방안 : 평론가 그룹, 창작자 그룹, 시민평가단 등 다층적 그룹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심의위원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
- 공유형 지원심의제 : 심의위원뿐만 아니라 1차로 선정된 지원자들이 심의과정에 참여하는 방식

문16. 귀하께서는 앞으로 예술위원회의 지원심의제도를 어느부분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에 따라 중복선택 가능)

- | | |
|---|------------------------------------|
| ① 심의위원회에 대한 사전 교육(사업목적, 윤리 강령, 심의진행방식, 비밀유지 등 관련의무 등) | ② 보다 구체적인 사전정보 제공(심의단계별 세부 진행사항 등) |
| ③ 지원신청 기간의 정례화 (예 : 매년 11월 21일) | ④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 풀 구성 |
| ⑤ 외압방지 등 심의의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 ⑥ 심의위원의 책임성 및 환류 강화 |
| ⑦ 심의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심의제도 도입 | ⑧ 사후 구제제도(지원심의 읍부즈만) 확대 |
| ⑨ 기타 () | |

문17. 지원심의제도 운영에 있어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8. 지원심의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심의제도 인식-재단 내부

문3. 귀 재단은 심의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ex. 절차, 심의위원 구성 등)

※심의위원 풀 구성 관련

문4. 귀 재단에서는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주세요.

문5. 귀 재단에서는 심의위원 선정을 위한 후보군 풀을 별도로 모집하거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후보군을 모집하고 전문성을 검증합니까?

문6. 심의위원 풀을 구성하는 후보자의 영역 비율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예술가, 평론가, 행정가, 기획자 등)

문7. 심의위원 후보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ex. 자질, 평판, 현장경험 등)

※심의위원회 구성

문8. 심의위원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합니까?(ex. 후보군 풀 내에서 영역별 무작위 추출 등)

문9.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는 별도로 심의와 관련된 자문위원 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합니까?

※심의위원회 운영

문10. 심의진행은 공개되어 있습니까? 공개되어 있다면 누구에게까지 공개되어 있습니까?(참관인, 지원예술가, 일반시민 등), 공개범위에 따른 효과가 있습니까?

문11. 심의진행시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주세요.

※심의 이후 피드백 여부

문12. 심의 이후 사후 모니터링 및 컨설팅,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지원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절차인지 설명해주세요

문13. 전년도 사업 평가를 차년도 심의에 반영합니까? 반영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심의제도 내에서 반영됩니까?

※심의제도 관련 의견

문14. 현재 귀 재단의 심의제도를 운영하면서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문헌

〈보고서〉

- 한국콘텐츠진흥원(2018),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설명회」
- 한국콘텐츠진흥원(2018), 「콘텐츠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
- 한국콘텐츠진흥원(2018), 「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 지침」
- 한국콘텐츠진흥원(2018), 「사업관리 규칙」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 「지원심의회도 개선을 위한 예술현장 대토론회 자료집」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7), 「문화예술정책 현황진단 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7), 「2017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7), 「2017 지원심의 운영지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7), 「2017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제도 개선 및 시행 경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7), 「유관기관 지원심의 및 보조사업 관리 방식 실태조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7),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 심의위원 의무이행 관리방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7), 「2016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 종합보고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7),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문화예술인과의 연석회의 개최 결과보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7), 「개방형 지원심의위원 풀 제도 도입 검토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7), 「예술위원회 지원심의제도 개선 관련 워크숍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7), 「2017년도 지원심의 운영 및 진행 매뉴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7),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서」
- ARTS COUNCIL ENGLAND(2017), 「GRANT-IN-AID AND LOTTERY DISTRIBUTION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6-17」
- ARTS COUNCIL ENGLAND(2013), 「GREAT ART AND CULTURE FOR EVERYONE」
- 영화진흥위원회(2017), 「2017 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계획」
- 영화진흥위원회(2017), 「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

- 영화진흥위원회(2017), 「심사위원 후보자군 관리운영 지침」
 김지현(2017), 「영화진흥위원회 기관운영개선 방안」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종합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11), 「주요국의 문화예술단체 지원방식 연구」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평가단·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 「2009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평가」

〈학술논문〉

- 류정아(2015),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진단과 방향 정립 : 팔길이원칙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종은(2014), 「예술위원회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비교 분석」, 한국문화정책학회.
 정창호·박치성·정지원(2013), 「문화예술지원정책 정책변동과정 분석 : 정책신념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2: 35-60.
 임학순·정종은(2013), 「예술위원회 역할체계 비교분석 :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한국의 사례」, 한국문화정책학회.
 한승준·박치성·정창호(2012), 「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비교 연구」, 행정논총 제50권 제2호(2012, 6): 257~291.

〈웹사이트〉

- 미국연방예술기금 <http://www.nea.gov>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 <http://www.culture.gov.uk>
 일본예술문화진흥회 <http://www.ntj.jac.go.jp>
 잉글랜드예술위원회 <http://www.artscouncil.org.uk>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http://nafac.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한국영화진흥위원회 <http://www.kofic.or.kr/kofic/business/main/main.do>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index>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kocca.kr/cop/main.do>